340.911
731ㅂ

석사학위 청구논문

북한 사회단체의 정치교육 연구

지도교수 고 성 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고 관 희

1999년 2월

북한 사회단체의 정치교육 연구

지도교수 고 성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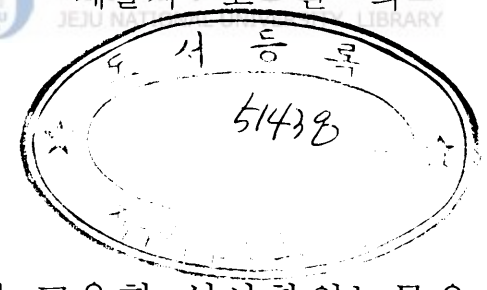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1998년 11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제출자 고 관 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고관희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1998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북한 사회단체의 정치교육 연구

고 관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지도교수 고 성 준

어느 국가이든 모든 국가에서는 체제의 유지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정치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러한 일환으로 북한에서도 체제의 안정과 유지 발전을 위하여 정치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체제와는 다르게 북한에서는 비공식적이고 무의도적인 교육보다는 공식적이고 의도적인 교육을 강화해 왔으며 이러한 교육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특히 북한에서는 전 주민을 연령, 성별, 직업 등으로 나누어 일정한 사회 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다. 이러한 사회 단체들은 자유주의체제처럼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압력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 유일사상의 교육을 통하여 김일성·김정일의 독재체제를 가능케하는 정치교육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치교육으로 인해 북한에서는 완전히 폐쇄적이고 통제가 가능한 사회가 유지되면서 일인 독재가 가능하였다.

북한에서는 유아기부터 공식적인 정치교육이 이루어지며, 만 9세가 되면 소년단에 가입하여 사회단체에서의 정치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소년단은 공산주의의 후비대가 되기위한 아동 단체로서 주요활동의 70%이상이 정치교육에 치우쳐 있다. 김일성주의 청년동맹도 역시 노동당의 규약에 노동당의 후비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요활동 역시 60%이상이 정치사상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조선민주여성동맹은 여성들의 정치교육과 특히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여성의 노동력을 확보하기위한 사회단체로서 김일성과 당의 시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밖의 직업동맹과 농업근로자동맹도 그들 나름대로의 구성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각자의 조직원들에게 철저한 정치교육 실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교육의 성과로 결국은 별다른 동요없이 김정일 체제가 등장 할 수 있어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에 계속적인 경제에서의 마이너스성장과 특히 지난 몇년간의 흉년과 '95~'96년의 수해는 북한체제에 커다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북한에서의 정치교육의 한계를 들어내게 하여 여러 분야에서 일탈행위들을 나오게 하였다. 이러한 일탈행위들은 그간 굳건하기만 하던 북한의 체제에 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전환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사회단체도 분명히 변화는 이루어지리라 예측되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어쩌면 체제 안정을 위하여 우리식 교육을 강조하며 더욱 보수적인 정치교육의 강화로 나아갈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역시 실용주의 노선에 편승하여 사회단체에서의 교육도 이에 부합하는 기술교육 등 실용주의 노선을 따를 수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 본 논문은 1999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Ⅰ. 서 론 ····· 1

1. 문제 제기 ·····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

Ⅱ. 북한 정치교육의 목적과 변천 과정 ····· 7

1. 정치교육의 목적 ····· 7

2. 정치교육의 변천 과정 ····· 11

Ⅲ. 북한 정치교육의 수행체계와 사회단체 ····· 19

1. 정치교육의 수행체계 ····· 19

2. 정치교육의 수행 기관으로서 사회단체 ····· 34

Ⅳ. 북한 사회단체들의 정치교육 실태와 한계 ····· 44

1. 청소년조직의 정치교육 실태 ····· 44

2. 근로조직의 정치교육 실태 ····· 50

3. 사회단체의 정치교육 한계 ····· 56

Ⅴ. 결 론 ····· 61

참고문헌 ····· 64

Summary ····· 6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목 차

표 1. 탁아소의 반별 구성…… 27

표 2. 북한의 학제…… 28

표 3. 북한 사회단체의 현황…… 36

표 4. 소년단 조직표…… 39

표 5. 청년동맹 조직 및 지도체계…… 40

표 6. 여맹의 조직표…… 41

표 7. 소년단 가입 서약서…… 44

표 8. 소년단의 정치교육 활동…… 45

표 9. 소년단의 주요활동 비율…… 46

표 10. 청년동맹의 활동…… 48

표 11. 청년동맹의 주요활동 비율…… 50

표 12. 여맹 맹원의 증감…… 58

표 13.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6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서 론

1. 문제 제기

어느 시대 어느 장소이건 그 사회의 유지존속과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중핵적 가치가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중핵적 가치는 비록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닐 지라도 한 사회의 존립근거로서는 필수요소인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각각의 공동체에서는 새로운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가치들을 부단히 전수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합의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의 유지존속과 발전을 위한 가치의 전수, 합의, 재창조의 역할은 교육이 담당하여 왔으며 이것은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한 사회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궁극적으로는 환경적 변인을 그 사회에 알맞게 개조할 수 있는 경험들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수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사회나 국가는 새로운 위기에 처하게 되고 심지어는 국가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대한제국이 끝내 주권을 상실하고 민족 전체가 일본의 지배하에 35년간이나 놓이게 된 것도 성리학적 가치체계를 시대 상황에 맞게 전환하지 못한 결과이며 이는 교육이 선도적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의 부재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없는 타율적인 가치의 강요를 초래하여 우리 민족은 비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의 결과 전승국들에 의해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분리되고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통한 동·서 냉전이라는 신 국제질서 속에서 자본주

제주대학교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와 공산주의라는 서로 다른 체제 속에 상반된 가치체계를 삶의 절대적인 원리로 신봉해 오게 되었다. 이러한 삶은 반세기를 넘어서게 되었고, 서로는 각자의 체제에 대한 존속을 위하여 자신의 체제만의 우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단일 민족의 맥은 오늘날 완전히 이질화되어 반민족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교육은 민족간의 이질화를 부채질하였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서 민족 이질화를 극복하는 것이 최대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서로의 존재가 자기 존립의 위험한 요인으로 인식하여 반목과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교육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치와 사회 형태가 무엇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현재까지의 북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북한의 정치 사상교육에 관한 연구들과 공식적인 공교육 기관의 교육 과정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집단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주민들이 일정한 사회 단체에 가입되어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러한 사회 단체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교육의 내용을 알아보고 이러한 사회단체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교육의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하여 올바른 북한에 대한 시각을 갖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 체제의 질서를 유지 발전시키지 않으려는 국가나 사회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의도에서 정치 교육의 기원은 서

양의 플라톤과 동양의 공자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플라톤의 경우 그의 저서 「국가론」(The Republic)에서 이상적 국가란 안정된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전제하고, 그 같은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각기 그들에 맞는 지위와 역할을 수용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고 하였다.

그리고 동양의 공자는 정치 교육의 덕목으로 가정, 사회, 국가 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효를 위시한 삼강오륜의 기본 질서를 제시하였다.[2]

우리 나라의 경우는 신라의 화랑도 정신, 조선의 유교 교육, 구한말과 일제 초기에 외국의 침략에서 나라를 구하고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강조된 '國民之精神', '自國之精神', '國民精神'등에서 찾을 수 있다.[3]

그러나 '정치 교육(Political Education)'이란 용어가 나타나고 체계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 이후 공산권을 제외한 자유민주국가들이 그들의 이념과 체제에 맞는 민주시민의 자질 교육을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이다. 특히 2차 대전 이후 많은 나라들이 신생 독립국으로 출범하게 되고, 미·소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전 세계가 양 진영으로 나누어지면서 각국은 이념 내지 사상적 대립을 극복하고 자국의 통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정치교육을 강화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각국의 필요에 따라 이념과 체제, 역사와 문화적 배경,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사회적 조건에 따라 각기 상이한 명칭과 내용으로 정치 교육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정치 교육」을 넓은 의미에서 정의한다면 '한 나라가 이상으로 하는 바람직한 인간 교육의 한 양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1. Dean Jaros(1973), *Socialzation to Politics*, Thomas Nelson, pp. 9~12.
2. Lin Yutang(1943), *The Wisdom of Confucius*, Random House, p. 19.
3. 박영길(1985), "한국 민족 정신 교육의 사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pp. 16~17.

그러므로 문화와 생활 양식을 달리하는 나라마다 목표하는 인간상이 다르고 그에 따른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을 달리하게 되면서 나라마다 다른 인간성이 육성되고 국민성이 달리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정치 교육」이란, 사회 질서와 체제 안전을 위한 국민의 의식적 지배 형식을 위한 교육을 뜻한다.[5]

여기서 의미하는 체제란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사회체제, 문화체제, 인성체제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것이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정치 교육'이나 '좁은 의미의 정치 교육'이나 간에 정치 교육은 다음과 같은 두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하나는 의도적인,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다른 하나는 무의도적인 비공식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전자의 것은 주로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를 「공식적 정치교육」이라 하고, 후자의 것은 가정과 일반적 사회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를 강조하여 「정치사회화」라고 한다. 그리고 전자의 것은 정치 체제로부터 더 큰 영향과 통제를 받으며, 후자의 것은 전통적인 문화 체제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다.[6] 그런데 대개의 국가에서는 공식적 학교의 교육과 비공식적 일반적 사회 관계에서의 교육적 기능과의 조화를 통해서 '정치사회화' 즉, 정치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교육을 통하여 그 공동체에서는 ① 정치 및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게 되며, ② 국민적 일체감을 형성하게 하고 사회적 통합의 기반을 조성하게 하며, ③ 국가, 정치, 정책의 목표설정의 일관된 기준의 구실을 제공하게 되고, ④ 국민 각자의 인생 목표 및 행동 양식의 설정, 선택, 비판 등의 기준으로서의 구실을 제공하게 하고, ⑤ 소수인에 의한 급격한 정치적 변동과 변혁을 위한 획책에 대하여 저항하게 하며, ⑥ 외국의 침략과 부당한 간섭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박용헌(1977), "북한의 정치교화교육", 「북한 교육론」, 북한 연구소, p. 265.
5. 상게서, p. 265.
6. Willem Langeveled, 「정치교육」, 박용헌 역(198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p. 35.

대한 국민적 저항을 고취하게 된다는 것이다.[7]

이러한 정치교육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공식적인 학교 교육과 비공식적인 사회교육의 조화를 통하여 자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율적인 무의도적 교육보다는 의도적인 정치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북한에서도 역시 가정이나 사회 일반 관계를 통한 무의도적인 교육, 즉 비공식적인 사회교육의 기능보다는 정치 체제에 의한 강제적 통제기능만을 강화하는 의도적인 공식적 정치교육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정치 사회화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대신 넓은 의미로 '사회주의 교육' 전반을 가리키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정치사상교양', '주체사상 학습'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는 일생동안 교육 과정을 겪는다는 뜻의 '전민(全民)교육'이라고 칭하기도 한다.[8] 이러한 정치사회화, 또는 정치교육에는 무의도적인 교육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전 생애를 걸쳐서 의도적인 정치교육만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정치교육 또는 정치사회화라는 용어와 구별하기 위하여 학자에 따라서는 정치 교화라고 칭하기도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러한 의도적인 정치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북한에서는 자유주의체제와는 다르게 사회 단체들을 통한 정치교육을 중요시하면서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집단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단체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들 사회단체들은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충실한 당 정책의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정치교육에 있어서 사회단체의 역할은 학교나 다른 공 교육기관 못지 않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북한의 정치교육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사회단체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여겨진다.

---

7) 박용헌(1986), "외국의 정치교육동향과 한국의 국민정신교육", 「국민윤리연구」, 제22호, p. 23.

8) 김경웅(1993), "북한의 정치사회화",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 p.25.

그래서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북한에서의 정치교육의 목적과 변천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3장에서는 북한 정치교육의 수행체계와 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사회단체를 살펴보며, 4장에서는 이러한 사회단체들 중에서 근로단체를 중심으로 정치교육 내용과 최근의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사회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에서의 정치사회화의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북한에 관한 연구가 안고 있는 자료의 제약성과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한 제한성으로 인하여 직접 자료를 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북한 및 국내외에서 나온 1·2차 자료를 기초로 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본 논문을 고찰해 나가고자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Ⅱ. 북한에서의 정치 교육

1. 북한 정치 교육의 목적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교육 목적은 그 나라의 국가이념과 일치하는 교육 이념을 토대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나라가 지향하는 이념이란 진리관, 인간관, 사회관 등을 포함하는 가치관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을 뜻하는 것이다.[9] 어떠한 인간을 육성할 것이냐의 문제는 한 나라의 문화 전통과 국가 이념, 또는 정치 이념과 경제적 여건 등의 삶의 이상과 조건에 따라 다르다.

북한은 북한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양성하는데 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 북한 공산당은 교육 목표를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필요한 인간 육성'[1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은 '공산주의사상과 결부되지 않은 지식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11]고 하면서 '사회주의 교육에서의 교육 목적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 즉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로동계급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를 키워내는데 있다.'[12]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월등히 우월하다는 것을 교화하며, 둘째, 새것은 낡은 것을 지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교화하며, 셋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제거하고 집단주의와 조직을 사랑하게 교화하며, 넷째, 사회주의적

9. 박용헌(1977), 전게서, p. 265.
10. 상게서, p. 261.
11. 김영식(1977), "북한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 상게서, p. 130.
12. 사회과학원편(1975),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리론」, 사회교육출판사, p. 41.

애국심과 국제공산주의를 사랑하게 교화하며 다섯째, 사회주의자로서 노동을 사랑하게 교화하며, 여섯째, 공산주의적 혁명 이념을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교화'하는데 있다[13]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치 교육의 목적은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에 필요한 인재양성 및 이와 같은 사회 체제에 동화할 수 있는 인간 개조를 달성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교육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면서 그에 기초하여 같은 과학지식과 건강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14]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에서 내세우고 있는 3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15]

첫째, 전 인민이 노동당의 혁명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영합할 수 있는 자세를 부양하기 위한 '전 인민의 혁명화'이다.

둘째, 프롤레타리아 일당독재의 사회 체제를 유지하며 혁명과 건설에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전 인민의 노동계급화'이다.

셋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해 헌신하며 이러한 정치 체제에 동화 적응할 수 있는 인간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전 인민의 공산주의화'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전 인민의 혁명화

인민들을 혁명화 한다는 것은 혁명적 세계관을 확립하여 공산주의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공산주의적 인간형인 '유물론적 세계관'에 투철할 뿐 아니라 이 믿음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까지 교습한 인민을 육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조형하려는 혁명적 행동 특성이란 공산당을 위시한 모든 조직과 그 구성원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13.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1977).
14. 「김일성 저작선집」 제7권(1978), 조선노동당출판사, p. 411.
15. 극동문제연구소(1974), 「북한전사: 중권」, 극동문제연구소, p. 355.

전위대로서 독재에 예속되며 그 독재의 명령에 복종하는 성격에서의 호전적 성격에 해당되는 행동특성, 독재적 성격에 해당되는 행동특성과 경쟁적 성격에 해당되는 행동특성을 말한다.[16] 이러한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주체사상의 혁명 사상과 이론의 교육을 조기교육부터 실시하는 정치교육인 것이다.

2) 전 인민의 노동계급화

북한이 시도하는 정치 교육의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교육을 통하여 모든 주민들을 노동계급화 한다는 것이다.

북한사회에서는 노동계급을 '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는 가장 조직적이고 혁명적이고 선진적인 혁명의 영도계급'[17]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동계급화는 노동자로 하여금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관점아래 유물론적 세계관을 토대로 성립시킨 사회적 계급관계의 이론이다. 그러나 이렇게 '노동자로 하여금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는 모든 주민들로 하여금 노동자로서의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18] 그리고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 것은 공민의 영예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19] '당원은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규율을 자발적으로 지키며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며 자기가 맡은 사업에 정통하며 맡은 바 임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해야 한다.'[20] '사람은 생산로동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를

16. 조병용(1992), "북한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p. 83.
17.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1985), 「철학사전」,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서울 도서출판 힘에서 재 출판, p. 794.
18.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1977. 9. 5.)에서 참조
1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14조(1983), 김창순편(1983), 「북한총람」, 북한연구소, p. 1775.
20. 「조선노동당규약」(제6차당대회), 제4조(1983), 상게서, p. 1743.

인식하고 변혁하며 자신의 사상의식과 통로를 개조한다. 생산로동에서 유리되어 학업에 전문으로 하는 학생들을 생산로동에 참여시키는 것은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학생들은 생산 로동을 통하여 사상을 단련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본받는다.' 또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제도는 혁명적 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리론과 실천을 다 갖춘 유능한 민족 간부를 키워낼 수 있으며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계를 통한 교육 사업은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 원리에 전적으로 맞는 것이며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쓸모 있는 혁명 인재를 키우는 매우 좋은 방도이다.'[21]라고 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정신적 창조성과 독창성을 무시하고 오직 당의 명령에 따라 노동에 충실한 인간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주민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공산주의사회에서 주민들이 노동을 기피하게 되면 공산주의 사회가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노동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렇듯 전 인민의 노동계급화라는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생산 도구로서 움직이는 기계와 같은 노예로 조형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3) 전 인민의 공산주의화

북한 정치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민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함으로써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드는 데 있다. 즉 공산주의화는 모든 주민으로 하여금 그들의 절대불변의 진리로 믿고 있는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정치교육의 목표는 공산주의사상(유물론적 세계관)을 주입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사상을 주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치교육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22]

---

21.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1977. 9. 5.)에서 참조
22. 김일성,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1958년 11월 20일에 행한 연설), 김창순편(1983), 전게서, p. 1322.

① 자본주의와 비교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우월함을 인식시킨다.

② 새 것은 반드시 승리하고 낡은 것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진리를 철저히 인식시킨다.

③ 사회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함에 있어 커다란 장애가 되는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철저히 반대한다.

④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을 철저히 갖도록 한다.

⑤ 노동애호정신을 배양한다.

⑥ 부단한 혁명사상으로 부단히 전진하고 계속 혁신하는 혁명적 사상으로 무장한다.

이와 같은 기준은 1950년대 후반 주체사상이 나타날 때까지 정치교육의 기본 지침이 되었다. 정치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산주의적 혁명인재의 양성에 있고 이러한 혁명인재는 바로 투철한 계급투쟁 의식을 가진 노동계급임을 알 수 있다. 즉 공산주의화와 관련된 북한의 정치교육의 목적은 공산주의 세계관을 믿게 하고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 낡을 것을 없애는 일에 도전하는 호전적 성격을 기르며 생산노동에만 전념하는 인간을 육성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정치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치교육의 변천 과정을 겪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북한 정치 교육의 변천 과정

공산주의적 인간 육성이라는 정치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이 수립하고 추진하는 정치 교육은 북한 내외정세의 변동과 그들 통치이데올로기의 수정에 따라 여러 차례 변천되어 왔다. 따라서 그들이 수립하고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 교육의 변천과정을 살펴 볼 필

요가 있다.

초기 북한의 정치 교육은 소련의 것을 모방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나, 정치적, 사회적 조건들이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천되었다. 즉 북한의 정치 교육 정책의 변천은 1945년에서 1950년까지의 공산주의 도입기, 6.25 전쟁 이후부터 1958년까지의 공산주의 모방기, 1959년부터 1967년까지의 혁명 전통 교양 확립기, 1968년부터 1979년까지의 유일사상체계 확립기, 1980년부터 현재까지의 권력 세습 확립기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3]

1) 공산주의 도입기(1945~1950)

북한은 1945년 11월에 [북조선학교교육 임시조치요강]을 발표하여 교육 내용을 공산주의적 방향으로 개편하고, 한국어에 의한 수업의 실시와 조선역사, 지리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1945년 2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중앙통치기구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민족 혁명이라는 미명하에 토지와 중요산업시설 등을 수탈하기 위한 구실을 계기로 삼아 전쟁준비와 정신무장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애국적 민주주의' 와 '민족 개혁'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애국적 민주주의'는 소련에서 강조하고 있었던 '사회주의와 애국주의' 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합친 용어로 공산주의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 국민에게 저항과 반발을 피하면서 해방 당시 우리 국민에게 매력을 주고 있었던 '애국'과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정치적 구호인 것이다.[24]

특히 김일성은 1948년 11월 13일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제3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상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①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무장할 것.

---

23) 박용헌(1983), "남북한대립이데올로기 교육의 회고와 전망", 「북한총람」, 북한연구소, pp. 1322~4.
국토통일원편(1986), "남북대화·교류시대에 대비한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정립연구", 국토통일원, p. 8.에서 참조

24) 북한연구소편(1983), 상게서, p. 1323.

② 노동과 건설을 통한 난관 극복. ③ 반미, 반일 사상의 고취. ④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주의를 강조할 것. ⑤ 과학 기술 교육을 신장시킬 것. 등이다. 이는 공산주의가 우수한 정치 체제라는 것을 선전하고 일제의 사상잔재 청산, 반제국주의사상 고취, 남침을 위한 정신 무장 강화로 반일, 반미, 반남한 사상을 제고시키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도입하는 준비작업을 시도한 것과 남침을 위한 정신 무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북한 교육의 기본은 소련으로부터 기초적인 제도를 도입 적용하고자 하였고 사회주의국가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면서 공산주의사상교양 등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2) 공산주의 모방기(1950～1958)

이 시기의 정치 교육의 기본 방향은 6.25 전쟁후의 경제 건설과 공산주의적인 사상교육의 기초 확립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사유재산의 몰수, 토지개혁, 생산과 노동의 집단화 등을 촉진하면서 전통과 구제도, 구 생활양식의 타파를 위해 철저한 계급 의식을 고취하고 공산주의의 일반 원리를 주민의 생활 태도로 고착시키기 위한 교육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강요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제시한 사상교육의 기본 정책은 '사회주의혁명수행자' 내지 '사회주의 건설자'를 조형하기 위한 '계급 교양과 공산주의 교양'을 확립하려 함이었다. 이렇게 이 시기에 완성한 계급 교양과 공산주의 도덕 교양은 '사회주의 사회 건설자'를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 원리를 제시한 것이나, 그 내용은 소련의 것을 모방한 것이었다. 즉 김일성은 1958년 11월 20일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새 것은 반드시 승리하고 낡은 것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공산주의 세계관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배격하고 집단주의를 강조하며, 노동관과 공공 재산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의 강조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소련의 교육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과학원에서 제정한 '공산주의도덕'의 내용이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나 '내 것이 우리 것이고 우리 것이 내 것이다.'라는 소련의 구호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25]

또한 이 시기에는 전쟁후의 경제건설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히 학교교육제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체계에서의 성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기술교육을 제공하고자 하였고, 1958년에는 기술의무교육제의 실시를 결정하기도 하였다.[26]

3) 혁명전통교양 확립기(1959~1967)

이 시기는 1958년 10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2기 4차 회의'에서 교육의 국가적인 성격을 재확인하면서 기술교육의 강화와 정치사상교육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을 골자로 한 정책을 채택한 시기부터 시작된다.

지금까지 소련에 의존해 온 북한은 그 당시의 소련이 제기한 평화공존과 스탈린 격하운동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1959년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교조주의가 비판을 받고 수정주의가 논의되는 것을 계기로 사회주의 각국의 독자적 노선이 강조된 점을 이용하여 북한도 스스로의 노선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소 분쟁으로 공산주의 이론의 다극화가 논의되면서 주체성과 독자 노선을 추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제까지 정치 교육의 모형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을 다시 수정하여 그들 나름의 정치 교육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27] 즉 북한이 국내외정세의 변동에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방향의 교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주체성과 자주노선을 찾게 되었다. 이 시기에 와서 이를 표면화하여 '당적 사상체계'를 다시 확립할 것과 '혁명전통교양'을 정립할 것을 서두르게 된 것으로 정치노선과 교육정책의 전

25) 박용헌(1977), 전게서, P. 291.
26) 한만길(1997),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p. 46.
27) 북한연구소편(1983), 전게서, p. 1324.

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소련의 의존상태에서 다소 이탈하기 시작하였고, 김일성유일사상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과거에 이론적으로 모방한 공산주의 교양을 그들이 새로이 실천을 토대로 확립한 혁명전통교양과 결부시켜 재인식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쉽고 확실히 교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혁명 전통의 내용을 그들이 조작한 '김일성 항일 유격활동'을 중심으로 엮어 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김일성을 공산주의사상 이론가로서 뿐만 아니라 그 이론을 구현한 실천가로서 마르크스와 레닌에 버금가는 인물로 신격화하여 그에게 초인적 권한을 부여할 터전을 닦아 놓으려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상교육은 점차 강화되기 시작하여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방향의 사상 교육을 시도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상교육과 함께 이 시기에는 기술교육의 강화의 측면에서 기술학교가 등장하고 기술고등학교에서는 기술과목과 생산실습과목이 등장하였으며 인민학교과정에 노동과목이 추가되는 등 기술교육체제 개편의 취지에 부합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2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유일사상체계 확립기(1968~1979)

1960년대 초부터 공산주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려고 애써 온 북한은 196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부터 모든 공산주의의 사상 체계를 김일성 개인에게 귀착시킴으로써 김일성 유일 사상 확립기에 들어간 것이다.

김일성 사상을 공식적으로는 '당의 유일사상'으로 표현하면서 김일성 사상 연구를 인민학교에서 대학까지의 정규학교에서는 물론 모든 직장, 마을, 가정 단위의 교육에서까지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즉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의 중심 정책으로 그것은 김일성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인간으로 개조하려는 것이다. 유일사상을 창시하고 혁명전통을 이룩하였다고 찬양함으로써, 신격화, 우

28) 한만길(1997), 전게서, pp 147~148 참조.

상화하고 있다. 사상 교육에 있어 과거에는 어떤 정책의 실현을 위한 필요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시기에는 인간성 자체를 개조하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그 동안의 사회건설과 우상화 정책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자, 새로운 과제인 새로운 인간 유형의 창조를 제기하였다. 다시 말해서 모든 과제의 달성 여부는 이 '인간개조'에 있다고 봄으로써 사상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29]

이러한 일인지배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이론체계로서 제시된 것이 '주체사상'인 것이다. 북한은 1960년대 말부터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지만 '주체사상'이 유일한 공식적 이데올로기(only one official ideology)로 체계화되고 강조된 것은 5차 당 대회 이후부터인 것이다. 1970년 11월 5일 5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속에는 '조선로동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의 위대한 주체 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이 바로 김일성 주체사상임을 명백히 했던 것이다. 그리고 1970년 12월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 속에도 주체 사상이 국가 활동의 지도적 지침임을 명시하고 있다.[30]

그리고 1977년 9월 북한 정권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중앙경축대회'보고를 통해 사상 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온 사회가 주체사상으로 꽉 들어찼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 시기 사상 혁명의 중심 과제는 모든 성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주체의 혁명관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의 전면적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도록 하겠다."[31]고 하고 있다. 북한은 주체 사상을 혁명과 건설에 있어서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 즉 주인다운 태도를 견지하는 사상으로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9) 상게서, p. 1324.
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제1장 4조, 상게서, p. 1751.
31) 국토통일원편(1984), 「북한 개요」, 국토통일원, pp. 305~6.

서의 자위"[32]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주체사상 교양의 중요성은 1980년 10월 6자당대회에서 노동당규약에서 최종 목표를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33]라고 규정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적 통일, 단결을 계속 다짐하고 있다.

5) 권력세습 확립기(1980~1994)

1980년 10월 6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식화하고 그 같은 권력 승계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그의 우상화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을 신설된 노동당정치국 상무위원회위원, 당비서 및 군사위원으로 하여 세습적인 계승체제의 구축과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부자 세습체제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1982년 2월 '지도자론'을 제기하여 김일성이 개척한 혁명 과업은 대를 이어 계승되어야 한다는 '세대교체론' 및 수령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혈통계승론', 그리고 수령이 지닌 사상과 이론, 영도기술을 배우로 이어받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역사적 '준비단계론'과 김정일은 수령의 화신이라는 '김일성화신론'[34]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1982년부터 김정일의 이름으로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보도매체를 통하여 그를 해설·선전하는 한편 이른바 '김정일로작' 학습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35]

그리고 1986년의 교육과정 개정을 통하여 김정일 우상화과목을 신설하여 정규교과에서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36]

6) 유훈통치기(1994~현재)

---

32) 주체사상연구소편(1975), "김일성의 주체사상", 사회과학출판사, p. 11.
33) 조선노동당규약(제6차당대회), 북한연구소편(1983), 전게서, p. 1742.
34) 국토통일원(1984), "김일성부자세습체제의 정책방향", 국토통일원, pp. 6~8.
35) 국토통일원(1987), 「김정일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 비판」, 국토통일원, pp 3~88참조.
36) 한만길(1997), 전게서, p. 153.

1994년 갑작스러운 김일성의 사망은 교육부문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우선은 김정일 중심의 우상화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지고 있다. 특히 1995년 2월 김정일의 생일기간 동안 백두산 밀영 참관, 생일충성 결의모임, 소년단 대회, 청년전위충성모임 등 수 많은 행사를 통하여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부각시키면서 그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고 있다.[37]

그리고 1996년 교육과정도 김정일의 위상을 부각시키면서 김정일 우상화 중심체계로 개편하였다. 이 일환으로 김일성에게는 '대원수님'의 칭호가 붙여졌고, 김정일에게는 '원수님'이라는 칭호가 붙여졌다.[38]

또한 1995년 4월 북한의 모든 대학은 김정일의 "우리식 교육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한 말씀을 전달받았다"고 한다.[39] 이는 현재 북한의 대외적으로 불리한 정세와 대내적인 경제난, 식량난을 겪으면서도 어떠한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우리식 교육'을 표방한다는 것은 북한의 교육을 더욱 폐쇄적인 방향의 사상교육을 강화할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반면에 1998년 5월에 개정된 헌법을 통해서 볼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기본법에 개방과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개념과 논리를 대폭 수용하기 시작한 점[40]으로 보아 실용주의적으로의 노선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진다. 이에 따라 교육에서도 과거 김일성 시대의 이념적 모습을 답습하기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지는 교육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진다.

---

37) 주간 북한 동향(216호), 통일원, 95. 2. 12~2. 18 참조.
38) 한만길(1997), 전게서, pp 160~163 참조.
39) 상게서, p. 53.
40) 고성준(1998), "북한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대북 정책의 과제",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권역별 대학 세미나, 민족통일연구원 ·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pp 13~14 참조.

Ⅲ. 북한 정치교육의 수행체계와 사회단체

1. 정치교육의 수행체계

정치교육의 수행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념, 내용 그리고 기관들이 행동체제의 구성과 동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구조화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은 북한의 정치교육의 실체를 밝히는 가장 중심적인 사항이다.

정치교육을 포함하여 체제의 전반을 지도하는 지도 이념은 주체사상이며, 이를 교육 강령으로 구체화한 것이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1977)이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체제 전반에 걸쳐 지도력을 발휘하는 총체적 이데올로기로서 정치교육의 최상위 이념인 동시에 선전선동과 조직동원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즉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지도사상이며 공화국 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41]이고, <테제는>주체사상을 보다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정치교육정책을 통해 체제의 이론으로 인민대중 속에 확산시킬 수 있는 국민교육강령으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1) 지도이념의 위상

북한의 주체사상의 변화 과정은 다음 3단계로 구분 지을 수 있다.[42]

60년대에는 대외적으로는 탈소노선의 공산주의 일반적 흐름과 같이하는 것이었고, 대내적으로는 정권의 정통성 투쟁에서 김일성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

41)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1968), p. 533.

42) 최동식(1992), "북한정치교육의 수행체계와 기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72~73.

는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70년대에 이르면 주체사상은 남북한간의 정통성 싸움에서 한국이 미제 식민지국가이며 제국주의의 앞잡이로서의 매판정권에 의해 지배되는 괴뢰정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부각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북한이 주체적인 정권임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을 상대적으로 비주체적이고 식민지적 성격이 농후한 정권으로 매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80년대에 이르러 체제경쟁에서 이미 패배가 확실해진 북한은 주체사상의 긍정적인 면[43]을 강조하면서 인민의 긍지를 고양시키려는 노력에 활용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주체 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의 보편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차원에서 1960년대를 통해 생성되었고, 70년대에 와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대등한 보편적 이데올로기 또는 그것을 능가하는 정치문화로서 위치를 굳혔다. 다시 말하면 공산권의 일반적 정세이기도 했던 탈소적 분위기와 독자노선 정립의 필요성에서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 군사적 자위력의 확보를 추구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총체적인 체계화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사회의 전반을 포괄하는 방대하고도 절대적으로 신성시되는 이념으로 위상변화를 하게 된 것이다.

이제 주체사상은 순수이데올로기의 차원으로 그 위상이 크게 격상되었고,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지닌 유물론적 발전이론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완벽하게 인간과 사회발전에 대한 정확한 이론을 정립하였다고 주장되고 있다.[44] 그리고 주체사상은 매우 심오한 사상이고 무한한 깊이를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현재로서 완성되어진 이론체계가 아니며 세계 혁명을 통해 전세계가 완전히 공산주의를 실현할 때까지 계속 탐구되어야 할 사상으로 간주되고 있다.[4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43) 예를 들면, '평등한 사회', '세금이 없는 나라' 등
44) 「정치사전」, p. 1058. 참조.

정치교육의 지표로서 주체사상은 인간개조이론으로 집약될 수 있다. 물론 이 이론은 1980년대 중반에 와서 체계화되었지만 새로운 이론이라기보다는 종래의 사상혁명노선의 종합적 체계화에 지나지 않으며 후계체제구축을 위한 김정일의 지도자적 위치를 부각하려는 의도와 함께 나온 것이다.[46]

이 이론은 공산주의적 새 인간 육성에 관한 완성된 과학적 이론이라고 전제된다. 인간개조의 근거로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텔리화하여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사회 건설에서 반드시 점령해야할 중요한 요새'라는 것이다.[47]

인간개조는 사상을 개조하고 문화수준을 높이는 두 가지 측면을 포괄하는데, 이 중 보다 근본적이고 주되는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사상개조에 두었다. 그래서 김정일은 이 사상개조를 '하나의 심각한 혁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4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북한에서의 인간개조 노력은 사회주의건설 시기에 이르러 본격화되었다. 사회주의건설의 단계에 이르러 '인간개조사업은 가장 전면에 나서는 혁명과업인 동시에 가장 높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간주된 것이다.[49]

2) 정치교육의 강령

1970년대 들면서 북한에서는 정치적 차원에서 사회주의 교육을 강화하자는 노력들이 현저하게 나타났는데[50] 이런 까닭은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이후 시기의 계승혁명을 추진하는데 사상적 요새의 점령이 선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

---

45) 박한식(1986), "주체사상이란 무엇인가", 「북한기행」, 양성철·박한식 편저, 한울, p. 117.
46) 강운빈(1989), 「인간개조리론」, 조국, pp 15~23 참조.
47) 상게서, p. 16.
48) 김정일(1982년 9월), '주체사상에 대하여', 「근로자」, ; 최동식(1992), 전게논문, p. 78에서 재인용.
49) 강운빈(1989), 전게서, p. 95.
50) 예를 들면 1973년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출간, 1975년 정치사상교육 이념서적으로 「사회주의교육리론」출간, 1976년 <어린이교육보양법> 제정 등

해서는 교육사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된 데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 의해서 1977년 9월 5일 당중앙위원회 5기 14차 전원회의에서는 그 동안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의 발전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을 거듭해 온 교육정책을 새로 정리한 공식적인 교육강령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였다.

<테제>는 북한이 추구하는 혁명 목표에 충실할 수 있는 사회주의 교육이념과 내용, 방법, 그리고 제도에 관해서 매우 체계있게 기술되어 있는 문서이다. ' 사회주의교육의 기본원리'라고 표현된 <테제>의 교육강령에 따르면 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공산주의혁명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51]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하여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52]하는 것이다.

또한 <테제>가 표방하는 사회주의 교육의 원칙은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5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첫째로 교육에서 당의 유일사상 체계로서의 당성과 노동계급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에 대한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를 키우는 일이 북한사회주의 교육의 가장 기본되는 목표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으려면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교육은 당의 정책적 요구와 의도를 관철하여 당에 대한 충실성 교양으로 일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교육에서 민족주의를 내세운 교육에서 주체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이 인류의 보편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민족의 특수성에 구속되고 또 그러한 특수한 여건을 충실히 고려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이 교육분야에서 찾고자 하는 주체는 한반도의 문화적 전통 그리고 고유한 민족 정신의 앙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의 혁명

51)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1977)에서 인용
52)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1977)에서 인용
53)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1977) 참조.

투쟁경력을 내세워 당의 정책을 유일적으로 주입시키려는 노력과 그들의 혁명 노선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있는 것이다.

셋째로, 교육에서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을 오직 혁명이라는 정치적 또는 국가 정책적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의 교육은 스스로 사고하고 성취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거이 없고 오직 주체사상과 당의 정책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요될 뿐이다.

넷째로, 교육은 국가적 책임의 원리를 바탕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 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 정교하게 체계화된 '사상문화를 교양하는 무기'로 간주된다. 유일적으로 체계화된 사상을 모든 성원들에게 끝임 없이 교육 교양하는 원칙이야말로 교육의 진정한 의미이며 사명이라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북한의 교육에 있어서 정치교육강령은 절대적 지침이다. 학교의 교육 활동이 정치교육에 바탕을 둔 교육강령을 충실히 이행하는가의 여부는 당조직에 의해 면밀하게 관찰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54]

<테제>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교육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55] 첫째는 혁명적 세계관을 지니고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혁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주축으로 구성된 주체사상을 교양하는 내용이다. 둘째는 공산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혁명적 낙관주의와 미래사랑의 정신으로 표현하고 계승혁명을 위해 헌신하는 정신으로 무장시킬 수 있는 계급투쟁적 사고와 혁명의 적에 대한 증오심을 표현하는 내용이 주축을 이루는 혁명교양 및 공산주의 교양이다. 셋째는 사회주의 교육의 중심논리이기도 한 집단주의 정신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주로 노

54) 최동식(1992), 전게논문, p. 86.
55)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1977) 참조.

동정신을 생활화하고 집단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무시할 수 있는 인간형을 양성하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은 사회주의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 및 민족적인 긍지와 자부심을 기르고자 하는 것으로 집단주의 정신과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다.

<테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공산주의 교육이론의 기초를 이루는 마르크스·엥겔스의 노동교육론과 레닌의 계급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그리고 집단주의를 역설한 마케렌코의 교육론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사회주의 보편성의 원리에 충실하기보다는 실천적 차원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의 이념적 근거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56]

3) 정치교육 기관

어떠한 정치구조도 암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정치적 행동성향을 형성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정치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정치사회화의 기관들은 대체로 가정이나 직장, 언론매체, 학교, 노동조합 등을 들 수 있다. 서구에서는 이러한 정치사회화의 기관들을 통하여 무의도적인 과정을 통하여 정치적 성향이 형성된다. 그러나 공산주의 특히 북한에서의 정치교육은 철저하게 의도적이고 명시적으로 이루어진다[57].여기서는 정치교육기관으로서의 가정과 학교, 언론매체의 구조적인 특징과 기능에 대하여 간단히 다루고 장을 바꾸어서 사회단체의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1) 가정

사회주의 가족제도의 원리와 이념에 따르면 가정은 낡은 체제의 모든 배덕의 무서운 요새로서 부르조아사상의 유물이기도 한 사고와 행동이 여기서 잉태된다고 간주된다. 그래서 엥겔스도 '사유재산의 폐지를 통하여 가정을 사회

56) 최동식(1992), 전게논문, p. 88.
57) 안승영(1977), "북한의 정치과정", 「한국정치론」, 김운태 외, p. 731.

적 사업의 차원에서 다루고 자녀양육도 사회적 공무로 전환시킴으로써 특히 여성을 해방하는 동시에 그들의 노동력을 산업에 돌려야 한다'[58]고 하였다.

이러한 원리는 실제로 소련에 있어서 혁명초기의 산업화를 위한 동원과정에서 가정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는 결과를 빚었다. 가정은 다만 노동력의 공급원으로 취급될 정도로 그 기능이 축소되었고, 심지어는 국가를 위해서나 가족구성원 자신들을 위해서도 가정은 불필요한 것이라는 극단적인 견해까지 등장하였다.[59]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견해는 가정파괴의 보편화에 따른 자녀양육 및 교육의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면서 1936년 이후에는 가정의 복원에 노력하기 시작하였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소련의 가정의 정서적 유대가 서구를 앞지를 정도로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부터 가족해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농장의 집단화와 개인상공업의 폐지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정의 기능축소현상은 불가피하였고, 소련의 시행착오적인 경험도 얼마간 되풀이할 수 밖에 없었다. 50년대 말 집단화와 국유화가 종결될 때까지 북한의 가정은 낡은 사상의 온상으로서 그 구조는 해체 혹은 파괴의 대상이었고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능은 커녕 오히려 역교화 또는 고발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정치권력은 가정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정을 사회주의적 인간의 생산을 위한 공산주의적 교육의 산실로 정책적으로 공식화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1971년 <여맹>제4차 회의에서 일탈행위를 하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가정에 있음을 강조하였고,[60]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국가가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릴 것'[61]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정치교육의 효과 면에서 가정이 역기능을 할 것이라는 초기의 인식

58) Friedrich Engels, 「가정의 기원」, 김대웅 역(1985), 아침, p. 183.
59) 최홍기(1982), "북한의 가족제도", 「북한사회론」, 북한연구소, p. 375.
60)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p. 64.
6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 제63조.

이 전환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62]

첫째, 어떠한 정치체제하에서를 막론하고 가정은 인간의 원초적 집단으로서 정의적이고 자연발생적이며 전인격적인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가정의 체계를 정치적인 목적에서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일은 한계가 있고 그 역기능이 심각하다는 보편적인 견해를 기초로 하고 있다.

둘째는 20여년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치재사회화 효과에 북한 정권이 자신을 갖게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일 수 있다.[63] 즉 낡은 사상에 젖어 있었던 부모들이 그간의 주체사상교양과 당정책교양을 통해 충분히 체제 순응적인 사람들로 교화되었음을 믿게된 것이다.

셋째는 김일성의 통치스타일과의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그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적어도 부모의 권위하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의 구조가 필요하였다. 김일성 자신의 카리스마적 권위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권위의 확대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는 가족주의적 통치행태가 북한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가족관념과 부모의 권위를 복원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러나 북한에서 가정생활 자체의 혁명화를 강조할 만큼 가정의 정치화수준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치교육의 핵심적 기능은 오히려 가정 밖에서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되어지고 있다. 인민의 의식 속에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친애하는 지도자의 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날마다 선전을 통해 세뇌하고 있는 현실은 가정기능의 상대적 위축 또는 심리적인 해체과정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가정의 갖는 본래적인 기능인 양육과 정서적 만족은 정치지도자의 카리스마적 권위부각에 반비례하여 축소 또는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2) 학교교육기관

자유주의 사회라면 학교교육기관에서의 정치사회화는 가정 다음으로 2차적 중요성을 갖겠지만, 북한의 경우 취학전의 아동들까지도 총체적으로 탁아소나

62) 최동식(1992), 전게논문, pp. 144~148 참조
63) 최홍기(1982), 전게논문, p. 396.

유치원에 수용되기 때문에 그 생활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며 또한 그 교육내용도 고도의 정치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정치교육의 효과는 가정의 그것을 능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64]

여기서는 취학 전 교육기관인 탁아소와 유치원, 그리고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로 구분 지어 기술하고자 한다.

취학 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 국가적 양육의 책임 하에서 수용하는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 하나는 집단주의적인 조기 교육을 통해 혁명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인간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조형하려는 정치교육상의 목적이다. 다른 하나의 목적은 어린이를 키우는 부담으로부터 여성을 해방한다는 구실로 사실은 여성노동력을 사회주의적 건설 현장으로 동원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높이려는 데 있다.[65]

현재 북한에는 약 6만여개의 탁아소[66]가 있다고 하는데 비록 시설과 영양관리가 국가와 사회의 책임 하에 최선의 것이 되도록 배려를 하고는 있으나 외국인의 시찰코스에 포함되는 평양시 몇 개의 탁아소와 일부 도시의 모델급 탁아소를 제외하면 비교적 낙후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1> 탁아소의 반별 구성[67]

탁아소의 반 종류	해당 연령
· 젖먹이반	생후 6개월
· 젖떼기반	7-12개월(만 1세까지)
· 젖떼기반	13-18개월
· 교양반(밥먹이반)(1)	19-24개월(만 2세까지)
· 교양반(밥먹이반)(2)	25-36개월(만 3세까지)
· 유치원 준비반	37-48개월(만 4세까지)

64) 최동식(1992), 전게논문, pp. 150~151.

65) 「어린이 보육교양법」(1976), 제6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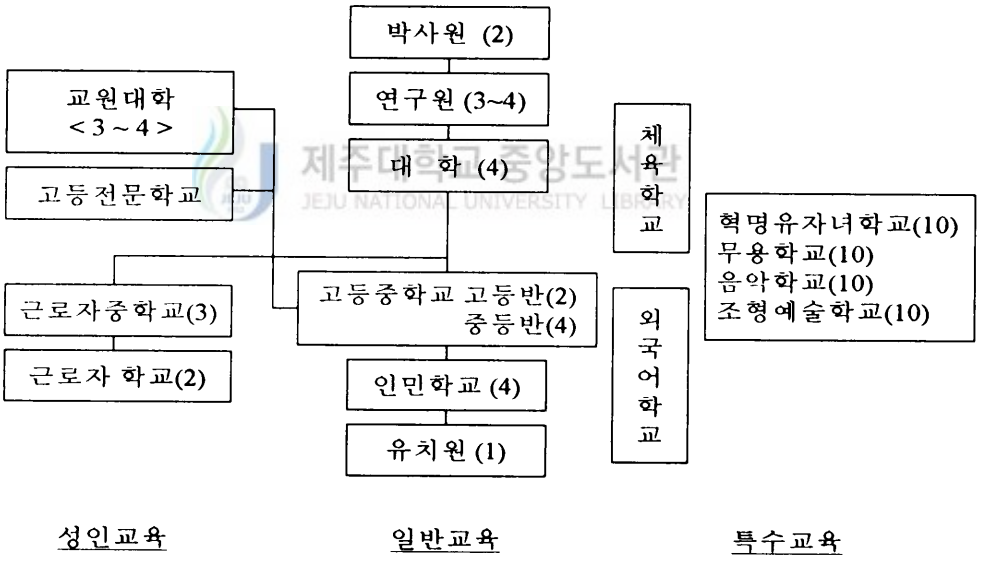
66) 유치원의 개수 포함, 1978년 3월 20일 평양방송의 내용, 정원식·박성수(1982), "공산주의국가의 유아교육",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4권 제2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 154에서 재인용.

67) 최동식(1992), 전게논문, pp. 152~153 참조.

탁아소의 반별 구성을 보면 <표-1>와 같이 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후 6개월 이전의 어린이까지 탁아소에서 양육되어지는 것을 보면 북한의 유아교육정책이 대단히 철두철미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유치원의 학제는 만4세부터 6세까지 2년간으로 높은 반과 낮은 반으로 구분되어 있다. 1975년부터 11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면서부터 높은 반은 학교 전 의무교육기관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연령에 속하는 모든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와 지원아래 유치원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표-2> 북한의 학제[68]



취학 전 교육의 일부를 포함하는 의무교육제도를 비롯한 북한의 학교교육제도는 정권수립 후 현재까지 5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현재의 학제는 1973년의 제5차 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초등학교 과정인 인민학교가 4년, 중등교육기관인 고등중학교 중등반 4년과 고등반 2년 등 6년, 그리고 취학 전 1년간의 유치원 과정을 포함하여 11년제 의무교육이라고 불리고 있다.[69]<표-2>참조

68) 김동규(1988), 「사회주의 교육학」, 주류, p. 404

북한의 인민학교는 자본주의 국가들은 물론이고 소련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그 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70] 원래 5년이었던 것을 1953년 내각 결정 111호에 의해 4년제로 개편되었다. 이는 전후 복구 및 경제 건설을 위한 인력동원이라는 시급한 과제 때문에 기능인력을 배출할 필요성에 의하여 일반 교육기간을 줄이고 단기(0.5-1년)노동자 학교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고등중학교는 1973년 학제개편으로 붙여진 북한 중학교의 공식 명칭이다. 종래에는 5년제의 중학교였으나, 1973년 학제 개편 때 중등반 4년과 고등반 2년인 6년으로 개편된 것이다.

현재 북한의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육과정안'은 1983년에 발간된 것으로 아려져 있다. 이 과정안의 교육 지침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에 따른다는 언급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의 학교를 지배하는 논리는 정치지도자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확립하는 것을 제1의 원리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정치사상교육 위주로 편성된 교육과정 운영의 경직성은 기술교육을 통한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방향전환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7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또한 사상교육 중심의 학생지도는 조직적 통제와 더불어 학생들의 지적 성취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적 성취보다는 당원이 됨으로써 계층상승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진학보다는 군복무를 지원하거나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을 택하고 있는 현실은 학교교육 자체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동시에 청소년을 무력화시키는 비인간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3) 언론매체

신문과 방송 등 언론기관을 보는 공산주의적 시각은 자유주의의 그것에 비해 매우 상반적이다. 우선 언론기관의 위상은 국가(곧 정권)의 하부구조로서

---

69)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1977) 참조.
70) 소련과 중국의 초등교육기간은 각각 8년과 5년이다. 김동규(1988), 전게서, p. 54. 280.
71) 최동식(1992), 전게논문, pp. 158~159.

존재하는 것이지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자유주의사회처럼 천적관계 또는 적대관계로 정립되지 않는 것이다.[72] 언론의 자유는 비판의 자유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는 자유로서 언론은 정부의 정책을 완벽하고도 신속하게 전달하고 인민을 설득하는 일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북한에서 역시 이 범주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도 기관의 기능은 대체로 선전선동, 문화교양, 그리고 조직동원기능 등으로 요약되며 결국은 사상 혁명의 도구로 활용된다고 말할 수 있다.[73] 다시 말하면 북한의 보도기관들은 뉴스의 전달이나 비판보다는 인민을 교양하는 사회교육, 또는 정치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가. 신문

로동신문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북한의 신문들이 갖고 있는 성격은 우선 기관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며 독자의 대상도 직업이나 사회 단체별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누구나 읽는 대중신문이 아니라 직장이나 직업 또는 사회 단체의 구성원에 따라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만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문의 내용도 대상을 분명히 전제하고 기술되게 마련이다. 정보의 원활한 흐름이 차단된 통제사회에서의 정치교육체계가 갖는 특징인 동시에 정치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두 번째 특징은 신문의 발행 횟수나 발행 면 수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간신문인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을 제외하면 5만부 넘는 신문이 없고, 상업적 경쟁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발행 부수의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가정배달의 필요성도 없다. 학교, 직장, 사회단체별로 집단배달이 있을 뿐이다.

---

72) 서정우(1989), "공산주의 언론의 본질과 기능", 「북한의 언론」, 유재천 편, 을류문화사, p. 23.

73) 최동식(1992), 전게논문, p. 179.

북한의 신문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수령과 당의 위대성 선전이다.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 해설」에 따르면 "수령님의 위대성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는 것은 우리 당 출판보도물 앞에 나서는 제1차적인 과업이고 기본 임무이며"[74] "수령님의 위대성을 설명하는데 지면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75]고 규정하고 있다.

나. 방송

방송의 구조와 기능이 정치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신문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고 하겠다. 다만 활자 대신 음성을 사용한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신문이 선전기능에 주력하고 있음에 비해 방송은 선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뉴스나 사실의 보도는 정보 공개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레닌주의 언론이론의 관점에 서서 사실의 바라보는 '정론성'이 중요시된다.[76] '정론성'이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선전, 선동, 교육, 동원에 필요한 요소들을 가미하여 각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77] 이 정론성의 기준은 바로 당성, 계급성, 인민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78] 다시 말하면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고 당정책에 충실한 내용이야말로 공산주의 혁명에 부합되는 내용으로서 방송의 내용은 여기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북한의 방송구조가 가진 특징 중의 하나는 유선방송체계를 들 수 있다. 이 유선방송은 '즉시성과 일방성에 따른 동원의 편리성'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 목표에 부합되는 방송체계였다. 즉 선전에 있어서 적의 방송에 교란 받지 않을 수 있고,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이점으로 인하여 북한에서는 1975년 무렵에는 전국적인 유선방송화가 실현되어 거의 모든 가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74) 유재천 편(1989), 전게서, p. 347.
75) 상게서, p. 351.
76) 상게서, p. 369.
77) 상게서, p. 153.
78) 최동식(1992), 전게서, p. 186.

이 유선방송을 수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9]

또한 북한에서 유선방송체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정책적인 것으로, 기술적인 통제가 용이하다는 점과 청취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개별적으로 수신하는 것보다 집단적으로나, 지역이나 단체별로 수신하게 함으로써 선전선동 및 조직동원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송체계는 전 인민을 사회주의 건설목표에 총력을 다하도록 이데올로기적으로 동원하는 중요한 기관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물론 당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종류의 잡지를 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잡지들의 특징을 보면 우선 출판사가 모두 국영 또는 준국영이라는 점과 각 출판사의 영역이 철저히 분담되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잡지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성, 오락성, 시사성이 거의 배제되어 있으며 비록 정치이론 잡지가 아니더라도 과학기술 전문지를 제외한 모든 잡지들이 정치사상교육에 충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론 기관들은 체제의 입장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첫째는 언론기관이 당의 일방적인 지도와 통제를 받아 강력한 선전 선동의 도구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민들로 하여금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도록 조직동원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언론의 논지와 내용이 획일적이어서 권력기반 강화 및 체제 유지를 위한 홍보의 차원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조직적인 측면에서 일사불란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자들은 오로지 당의 정책 또는 체제수호의 차원에서 선전선동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이다.[80]

따라서 북한의 언론기관을 통한 정치교육은 합목적성, 규범성 그리고 가치지향적인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방법은

79) 유재천 편(1989), 전게서, p. 31.
80) 최동식(1992), 전게논문, p. 191.

일관되게 군중 노선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그 궁극적인 귀착점은 체제의 유지 강화를 위한 동원기능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는 것이다.

(4) 사회단체

북한에서 김일성의 유일사상을 대중 속에 확산시키는 종교적 전도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전체 인민을 망라하는 각종 사회단체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노동당의 산하 단체들로서 당의 정책을 구현하는 하부조직인 동시에 당이 규정한 사회 규범으로서의 일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때문에 조직의 목표는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사회단체들과는 달리 구성원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설정되며 하향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사고와 행동 전반을 규제한다.

북한에서의 조직활동을 통한 사회정치활동은 정치교육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북한에서의 조직활동은 이를 통한 정치적 활동의 훈련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훈련에는 두 가지 의도가 담겨져 있다.[81]

첫째는 당과 수령의 교시를 무조건적으로 관철시킴으로써 유일적 통치이데올로기에 의해 사회를 일원적으로 통합하고 조직적 통제를 통해 권위주의적 통치권력을 강화하려는데 있다.

둘째는 조직원들 사이의 상호비판을 통하여 사상을 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82] 집단적 비판 또는 비난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늘 혁명적인 긴장분위기를 유지시킴으로써 동원태세를 갖추도록 하며 그러한 생활의 습관화를 유도하여 통치권의 의도를 무조건 수용하고 추종하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이러한 사회단체로서는 크게 '사회적 조직'과 '근로단체'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81) 상게논문, pp. 161~162 참조.
82)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p. 469 참조.

2. 정치교육의 수행기관으로서 사회단체

1) 북한 사회단체의 특성

모든 국가에서는 목적에 따라 사회단체들이 조직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가 조직되어지는 목표나 이념, 조직의 원리나 형태 및 정도 등은 사회의 성격에 따라 반드시 일정한 것이 아니다. 사회에 따라서는 개인들이 전체의 목표를 위해 동원되고 통제되는 측면에 보다 강조를 두어 개인의 자율성의 영역이 크게 제한되어지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질 수도 있으며, 반대로 개인의 자율성의 영역을 최대한 존중하여 조직이 개인에 대한 통제와 지배를 최소화하려는 방식으로 사회가 조직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83]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사회와 같은 전체주의사회에 있어서의 사회조직의 원리는 개인을 최대한 조직화함으로서 개인을 전체의 목적을 위해 동원하고 통제하는 한편 개인의 자율성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사회 조직을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입장에서 사회를 조직하게 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러한 까닭에 북한의 사회단체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사회단체들과 성격상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의 사회단체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다양한 계층들의 계급적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이익 단체'가 조직되는 것과는 달리 그 자체가 사회주의 건설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84]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회 생활이 복잡해지고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와 욕구가 발생함에 따라 이익을 대표하는 기능의 독자적 담당자로서 이익집단이 조직되는 데 반해, 사회주의 사회인 북한에서는 근로대중의 조직화를 통해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들이 조직되는 것이다.

---

83) 북한연구소(1977), 「북한사회론」, 북한연구소, p. 283.
84) 한국정치연구회(1990), 「북한정치론」, 백산서당, p. 350.

그러므로 '이익집단', 또는 '압력단체'와 '사회단체'의 조직 성격의 차별성은 자연스럽게 이익집단과 사회단체가 각자의 체제 내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익의 다원화 현상과 관련하여 결성된 이익집단들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계급적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중심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광범위한 대중을 당과 수령의 주위로 집결시키고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조직된 사회단체들은 '대중과의 사업'을 중심적으로 수행한다. 즉 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을 혁명과 건설로 조직 동원하는 것이 사회단체의 중심 과제인 것이다.

이렇듯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사회단체는 공통의 이해관심이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되어서 있는데 반하여 북한에서는 정치사회화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혹은 당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직된 공식적 기구인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런 까닭에 우리가 북한사회를 바라볼 때 '자유민주주의 가치기준'으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을 평가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는 것처럼, 이런 관점은 사회 단체에 대한 분석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조직성격의 차이에 따라 지위와 역할이 다르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북한사회의 사회단체들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사회집단으로서 집단구성원의 이익을 명시하는 이익집단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압력집단과는 상이하다'[85]고 대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회단체를 이해하는 대에는 적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북한사회단체에 대한 연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단체와는 달리 북한에서의 혁명과 건설에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회단체의 현황

북한에서의 사회단체는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로서 당의 충실한 보조

85) 이정수(1986), "김정일 세습체제 하에서 외곽단체의 활동", 「통일문제연구」, 국토통일원 통일연구소, p. 140.

자역할을 하면서 정치교육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단체는 북한에서는 1980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104개가 조직되어 있다.[86] 이러한 사회 단체를 구분함에 있어서 계층별 조직된 조선직업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조선문학예술총동맹, 기자동맹 등과 연령과 성별로 조직된 조선민주여성동맹, 김일성주의청년동맹, 조선소년단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87] <표-3>에 나타나 것과 같이 1949년 6월 22일에 결성된 '조국통일민주전선' 산하에 사회단체로는 북한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혁명의 기본군중을 망라하고 있는 '근로단체'와 고유한 자기 사명과 특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회적 조직'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88]

<표-3> 북한의 사회단체 현황

<table>
<tr><td colspan="3">조국통일민주전선</td></tr>
<tr><td colspan="3">사회 단체(1980년 기준 104개 단체)</td></tr>
<tr><td colspan="2">근로 단체</td><td>사회적 조직</td></tr>
<tr><td>청소년 조직</td><td>성인 조직</td><td rowspan="2">조선문학예술총동맹
4.15 문학창작단
만수대창작사
피바다가극단
조선종교인협의회 등</td></tr>
<tr><td>김일성주의청년동맹
조선소년단</td><td>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td></tr>
</tabl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사회적 조직들은 현재 문화, 예술, 스포츠, 학술, 종교 등 다양한 분야별로 조직되어 있지만 이러한 조직들은 자율성을 가지고 집단의 이익 표출 등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정치적으로만 이용되어지고 있다.

86) 한국정치연구회(1990), 전게서, p. 350.
87) 천장웅(1991), "사회주의권 청소년단체의 정치사회화", 「한국청소년연구」 제6호, p. 66.
88) 상게서, pp. 349~351.

여기서는 북한의 정치교육을 위한 사회단체로서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을 다 망라하고 있으면서 직접 정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단체'와 아동기의 정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조선소년단'에 대하여 기술해 보기로 하겠다.

2) 정치교육기관으로서의 근로단체

북한에서는 대중과 당과의 관계에서 근로단체들이 갖는 지위를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로서의 근로단체들은 우리 당의 가장 믿음직한 방조자이며 후비대이다'[89]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단체들이 당의 외곽단체로서 각계각층의 대중을 조직화·의식화하여 당과 수령의 주위로 견인해내며 당은 이 같은 근로단체들을 통하여 대중과 '혈연적 연계'를 맺고 그들의 혁명적 투쟁에로 동원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로서의 근로단체들이 사회주의 건설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90]

첫째, 근로단체들은 수령이 제시하는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해야 한다.

둘째, 근로단체들은 대중 속에서 핵심을 키워내어 당대열을 끊임없이 보충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단체들은 대중에 대한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위의 역할 중 특히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역할을 주체사상이 완결적인 자기 논리를 갖추고 북한사회의 지배 사상으로 자리잡으면서부터 더욱 강조되고 있다. 왜냐하면 주체사상은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온 사회를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 과제를 전면에 제기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근로단체들이 무엇보다도 대중을 혁명화하고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는 사상사업을

89) 「조선 노동당 규약」 제56조.
90) 사회과학출판사(1985), 「령도체계 :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9」, pp. 195~197.

자기의 근본사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사회에서의 근로단체들은 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인 국가기구와도 그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공유된 목표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익집단과도 그 성격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근로단체들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대중에게 설명 선전하고 그들을 당과 수령의 주위로 조직화하여 당의 '방조자', '후비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자체가 완전한 사상교양단체가 되어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자지하고 있는 것이다.[91]

그럼 대표적인 근로단체들과 조선소년단의 조직과 형성 그리고 그들의 활동원칙 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조선소년단

'조선소년단'은 1946년 6월 6일 발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서 각급 해당학교에 소년단 조직이 있다. 소년단 조직은 각 인민학교와 중학교에 조직되어 있으며 해당 시·군 청년동맹 소년부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다. 각 학교에서는 소년단의 학교소년대가 있고, 그 밑에 분단 · 반 · 분조가 있다.

인민학교에 조직된 소년단에는 만 9세부터 입단하게 되어 있으나 인민학교 2학년에서는 특별히 열성이 인정된 일부 학생만이 입단이 허용되며, 인민학교 3학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입단하여 조직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 이 소년단 활동은 고등중학교 2학년인 13세까지 계속되어, 고등중학교 3학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청년동맹에 가맹하도록 되어 있다.[92] 소년 단원으로서의 입단 의식은 김일성 생일(4월 15일) 또는 소년단 창단 기념일(6월 6일)을 전후하여 개최되는 지역별 소년단 연합대회 석상에서 이루어진다.[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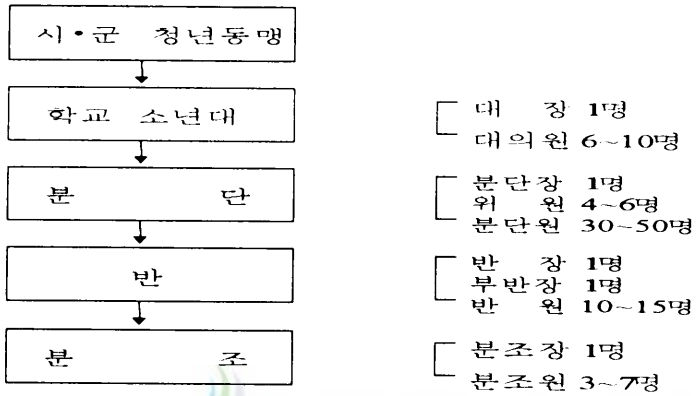
---

91) 한국정치연구회(1990), 전게서, p. 354.
92) 이항구(1985), 「북의 실상과 허상」, 한국출판사, p. 99.
93) 이상두(1986),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거목, p. 154.

소년단에 대한 지도와 통제는 당원인 교원 가운데서 특별히 열성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시·군 청년동맹에서 발령하게 되어 있으며 그 명칭은 소년단 지도 교원이라 칭하며 그의 전적인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

소년단의 조직은 <표-4>과 같다.

<표-4>소 년 단 조 직9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김일성주의청년동맹

1946년 1월 17일 '북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창립된 것이 그 시초이며 그 후 1951년 1월 17일 '남북조선민주청년 중앙위원회 연합회의'에서 '남북조선민청'을 '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통합 결성하였다. 1964년 5월 12일 '조선민주청년동맹' 제5차 대회에서 그 명칭을 새로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이라고 개칭하였고,1998년에는 김일성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하였으며, 약칭도 '사로청'에서 '청년동맹'으로 부르게 되었다.

청년동맹은 행정 및 생산단위로 조직되는데 청년동맹 중앙위원회·도(직할시)위원회·시(구역)·군 위원회·리 위원회와 각 직장·공장·기업소·군대·학교 등에서도 조직하도록 되어 있다. 청년동맹 규약에 의하면 그 초급단체는 '동맹원 3인 이상이 있는 공장·기업소·협동농장·국가기관·교육 문화기관·보건기관·인민군대와 기타 모든 단위들에 조직한다.'고 되어 있다.9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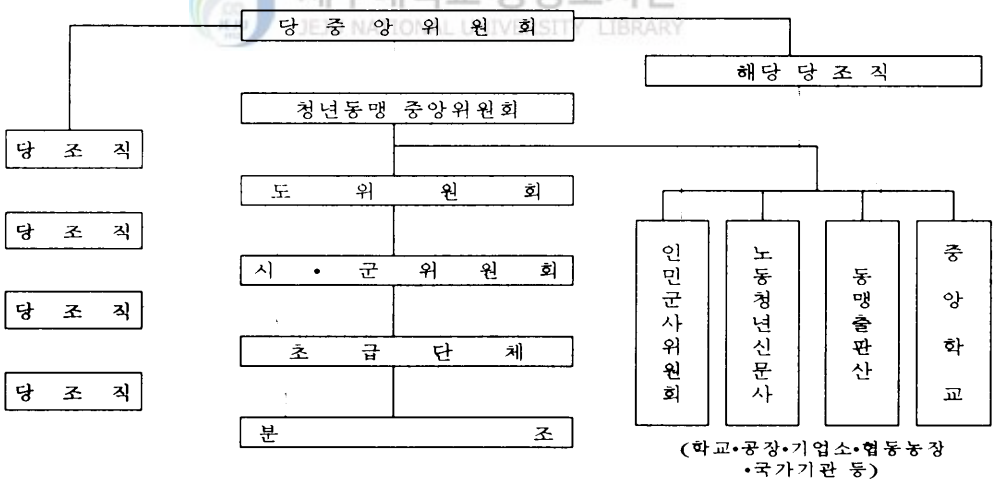
94) 극동문제연구소(1980), 「북한전서」, 극동문제연구소, p. 616.

또한 규약 제1조 1항의 가맹 자격을 보면 '만 14세부터 만 30세까지의 청년으로서 동맹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동맹의 일정한 조직에서 열성적으로 사업하며 규정된 맹비를 바치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청소년 조직활동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청년동맹 맹원은 대학 등을 졸업하고 직장에 배치되어 30세가 될 때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96]

청년동맹은 북한 청년들을 감시 통제하며 노동에 동원시키고 채찍질하는 단체이다. 북한의 청년들은 이 조직이 시키는 대로 모든 일에 복종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 연령에 달한 청년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동맹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노동당은 이 청년조직체를 당의 전위대로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이 조직을 선두에 세운다.

<표-5> 청년동맹 조직 및 지도체계[9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5>에서 나타나듯이, 청년동맹의 조직 원칙은 노동당을 비롯한 기타의 조직과 유사한 중앙집중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었으며, 중앙부처는 조직부, 선

95) 이항구(1985), 전게서. p. 83.
96) 이상두(1986), 전게서, p. 157.
97) 문교부중앙교육연수원(1981), 「북한 주민의 한 평생」, 문교부, p. 34.

전선동부, 국제부, 소년단사업부, 학생청년부, 노동청년부, 체육부, 재정경리부 및 노동천년신문사, 동맹출판사와 중앙학교를 산하에 두고 있다. 지방조직은 시·도·구역·기층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인민군 내에도 청년동맹의 조직이 침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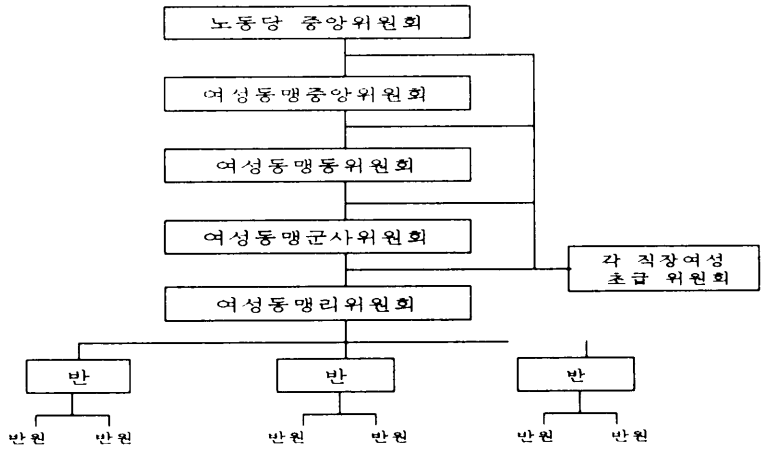
(3) 조선민주주의여성동맹

북한 노동당은 북한 인구의 50.5%를 차지하는 여성들을 일정한 형태로 조직에 묶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해방 직후인 1945년 11월 18일 '북조선 민주여성동맹'을 조직하였다. 이를 전후하여 남한에서도 1945년 8월 17일 '건국부녀동맹'을 결성하였는데 이 동맹이 동년 12월 22일 ~ 24일까지 3일 간에 걸쳐 '전조선 부인단체대표자대회'를 열어 '조선부녀총동맹'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 후 1951년 3월 '북조선민주여성동맹'과 '조선부녀총동맹'을 통합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맹의 조직단체는 여맹 중앙위로부터 도(직할시)·시(구역)·군·동·리에까지 광범하게 조직되어 당의 외곽단체로서 또한 당의 어용 인전대로서 활동하고 있다.[9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6> 여맹의 조직표[99]



98) 극동문제연구소(1976), 「북한정치론」, 극동문제연구소, p. 152.
99) 이항구(1985), 전게서, p. 85.

(4) 조선직업총동맹

1945년 11월 30일 북조선직업동맹으로 창설하여 1951년 1월 20일 소집된 남북직업총동맹 연합회의에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와 통합하여 조선직업총동맹으로 통일하였다.

직업총동맹의 조직으로 중앙기구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밑에 조직부·노동보호부·문화부·노임부·재정부기부·부녀부·선전부·군중문화부 등 부서가 있으며 산업별 직업동맹 중앙기구로서는 조선금속화학공업 노동자직업동맹 중앙위원회를 비롯해서 전기·석탄·경공업·상업·기계공업·건설·임업·수산·관통·체신·교육·문화·보건 및 공무원 직업동맹이 등이 있다. 한편 지방 기구로서는 행정단위와 생산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도(직할시)와 시(구역)·군 직맹위원회가 있다.[100]

이러한 북한 내의 직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직맹과는 개념이 다른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직맹규약에 명시하고 있듯이 '조선노동총동맹은 조선노동당의 옹호자이며, 당의 영도 하에 자기의 모든 활동을 전개한다. 직맹은 노동계급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그들을 당 주위에 결속시켜 당이 제기한 혁명임무수행에도 조직 동원한다. 동맹내의 당적 사상체계를 확립하며 종파주의·지방주의·가족주의를 비롯한 부르죠아사상 잔재를 반대하여 투쟁한다. 관리의 학교, 경영의 학교, 공산주의의 학교로서 직맹은 북한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의 지도하에 공장·기업소들에게 생산협의회를 조직 운영하며 상호 의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다.'[101]고 규정하며, 노동당의 전위대로서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5) 조선농업근로자동맹

1946년 1월 31일 당의 외과단체로서 '북조선농민동맹'을 조직하였다. 그후

100) 상게서, p. 80.
101) 극동문제연구소(1980), 전게서, p. 214, '조선직업동맹규약, 제1장, 총칙'.

1951년 2월 남로당의 외곽단체였던 '농민조합총연맹'과 통합하여 '조선농민동맹'으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이 조직은 농업집단화가 시작되면서 개인 농민을 대상으로 조직된 만큼 집단화된 조건 속에서는 그 역할이 상실될 수밖에 없었고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협동농장에 속한 농장원들 중에는 어느 조직에도 속하지 않은 비조직원이 생기게 되었고, 이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조직화라는 사회주의단체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게 되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동 농장원 및 농업부분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이 1965년 3월 25일에 조직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단체는 농민의 이익옹호가 아니라 노동당의 명령과 지시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농민을 감시·통제하며 농민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착취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조직된 단체이다.[102] 또한 순수한 협동 농장원(농민)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농장과 관련 있는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가입하고 있다. 즉 협동 농장원을 비롯한 국영농장, 국영목장, 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 관개관리소, 농기계제작소, 농기구공장, 자재공급소, 가축 위생 방역소, 등의 노동자 사무원까지 가입되어 노동당의 전위대의 역할을 하고있는 것이다.

이상의 근로단체들은 전 주민의 집단화에 의하여 연령별, 직업별, 혹은 성별로 모든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조직하여 이들의 정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다음 장에는 이러한 단체들을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구분하여 정치교육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02) 북한연구소(1985),「북한총람」, 북한연구소, p. 271.

Ⅳ. 북한 사회단체들의 정치교육 실태와 한계

1. 청소년 조직의 정치교육 실태

주민들의 조직생활을 지도하는 당의외곽단체 또는 사회단체들로서 만 9세부터 30세까지 청소년기의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단체는 '조선소년단'과 '김일성주의청년동맹'이다. 이들의 조직은 따로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동맹 산하에 소년단이 조직되어져 있다.

1) 조선소년단.

소년단은 북한의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중등반 학생(8~14세)들로 조직되어 있는 정치조직이다. 이 조직의 목적은 '노동당과 수령 주석을 위하여 무한히 충실하여 어떠한 곤란도 극복할 수 있는 붉은 전사로 길러내는 데' 있으며 독자적인 기구를 지닌 것이 아니라 청년동맹 중앙위가 전체적인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휘체제는 노동당의 위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103] 이들 소년단의 주요 임무는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해 항상 준비하려는 것이며, 평상시 구호도 '공산당의 후비대가 되기 위해 항상 배우며 준비하자'로 되어 있다.[104]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입단을 위해 작성되는 서약서의 내용이다.

<표-7> 소년단 가입 서약서[105]

나는 조선 소년단에 입단하여 공산주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배우고 준비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 ○ 학년 ○ ○ ○ 19○○년 ○월 ○일

103) 국토통일원(1981), 「북한자료집」, 국토통일원, p. 120.
104) 국토통일원(1978),「북한의 생활실태」, 국토통일원, p. 120.
105) 상게서, p. 120.

입단과 더불어 수령의 어린 시절, 아동혁명단, 노동당과 소년단, 항일 빨치산투쟁 회상기 등의 입단 후 교육이란[106] 학습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이야기 모임 분단회의 등의 비판과 학습토론회를 수시로 가질 뿐 아니라 야영훈련 및 전적지 답사를 실시한다. 그뿐 아니라 단원들은 '김일성과 노동당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명령과 지시 관철에서 근위대 결사대가 되자' 등의 구호를 외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

소년단원들은 정치적 조직활동의 시작이며 북한사회의 혁명을 위한 기초조직이기 때문에 생활을 잘 해야만 공부는 물론 위대한 혁명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며 소년단의 일상 생활은 <표-8>과 같이 매일 짜여진 일과표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

<표-8> 소년단의 정치교육 활동[107]

종 류	내 용	비 고
1. 회 의	· 학급회의, 소년단 회의, 소년선봉대 회의, 회상기, 낭독모임, 각종 서클 모임	주 2~3회
2. 주간행사		소년단 제2차 열성자대회 (73. 2)
월: 사회봉임	· 어린 나이에 비해 과중한 책임량 부여, 노력동원, 계몽선전.	
화: 회의	· 김일성을 위한 결사대가 될 것을 맹세 · 공산주의 도덕 무장, 사상무장, 반성 등	
수: 문화의 날	· 문학 모임: 혁명학습, 김일성 우상화를 주제로 한 내용	
목: 위생의 날	· 사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	
금: 실습, 견학	· 주변청소, 위생검사, 환경미화 · 공장견학: 사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	
토: 체육운동	· 각종 체육	

106) 공산권문제연구소(1974),「북한관계자료집」, 공산권문제연구소, p. 230.
107) 국토통일원(1978), 「북한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pp. 139~140.

종 류	내 용	비 고
3. 선전 예술	· 소년선전대, 소년선전예술대, 당정책 해설 인준 · 가창대 활동	소년단 평양서 연합대회 (71.4)
4. 좋은 일 하기운동	· 나무심기, 길옆 꽃심기 · 위생근위대, 문화위생 선전대 · 애림대(愛林隊) 활동, 녹화 근위대	청년동맹 6차대회 (71. 6)
5. 경제계획 뒷받침「꼬마 6개년 계획」	· 노력동원: 토끼 사육, 조림(造林), 고철수집, 피마자와 산열매따기, 약초캐기 · 헌납운동: 트랙터, 소년호탱크, 비행기, 함선 헌납 · 회화벌이 운동: 약초 가꾸기	청년동맹 6차대회 (71. 6)

이와 같은 일과표에 의한 소년단의 주요 활동은 <표-9>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9> 소년단의 주요활동 비율[108]

조직활동	사상교육	선전선동	자아비판·상호비판	기타
37%	38%	12%	8%	5%

특히 1981년 6월 6일 소년단 창립 35주년 기념집회를 개최하고 김일성은 축하문을 통하여 소년단의 기초 임무는 주체혁명위업의 후비대로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실천사항을 제시하였다.[109]

① 전체소년단원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에 끊임없이 충성할 것.
②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건설자로 준비할 것.
③ 사회정치활동과 좋은 일하기 운동을 강화할 것.
④ 조국 통일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것.
⑤ 소년단 조직활동을 잘할 것. 등이다.

108) 국토통일원(1978), 「북한 이질화 실태조사」, 국토통일원, p. 427.
109) 내외통신 종합판(1983), 제20호,

이와 같은 교육내용을 통해서 볼 때, 북한은 집단주의화를 통해 '공산주의화',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김일성 우상화' 및 김정일 체제의 공고화를 가속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2) 김일성주의청년동맹

북한에 있어서 정치교육을 위한 청소년 사회단체가 김일성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이다. 이는 소년단을 마치고 고등중학교 4학년 (만14세)부터 대학 그리고 직장에 배치되어 30세가 될 때까지 맹원으로서 활동을 하게될 '소년단'의 상급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동맹원은 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에 그리고 전체동맹조직은 중앙조직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레닌의 당 조직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된 청년동맹은 조선 노동당의 영도 밑에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110]고 규약에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노동당 규약에서는 청년동맹을 노동당의 후비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당은 청년동맹에 대하여 당 후비대로서의 역할과 유일사상계의 확립을 위한 혁명투쟁을 강요하고 있으며, 청년동맹은 북한 청년들을 공산주의사상과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으로 교양하고 유일사상으로 무장시켜 노동과 투쟁을 통하여 청년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주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청년동맹의 기능을 살펴보면,

①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며 인민 대중에게 침투시키는 선봉적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당의 후비대로서 군대, 공장, 기업소 및 농어촌에서 노동당의 지주역할(支柱役割)을 한다.

② 노동당의 분열을 보완해 주는 예비 당원을 양성하는 기능을 한다.

---

110) 이대길(1973), "당 외곽단체로서의 사로청", 「국제문제」, 1973년 11월호, p. 60.

③ 전 동맹원을 노동당에 입당할 수 있도록 교양하며 남한의 적화 통일을 기도하기 위한 인적 자원 및 예비대의 역할을 한다.[111]

이상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이 진행된다.

<표-10>청년동맹의 활동[112]

종 류	내 용	비 고
1. 회 의	· 간부회의(수시), 전체회의(주1~2회), 경험교환회의(매일소조 개최) · 당정책: 김일성 교시 실천, 사상성, 열성강조. 자아비판 태만자, 불성실자 비판. · 사회회의: 붉은청년근위대회의「회상기」학습 모임. · 각종 써클 모임 · 당회의 또는 사로청회의 연맹 또는 노근맹회의, 여맹회의(여성), 학교회의, 노농적위대. · 기타 각종 소조(小組)모임	
2. 주간계획 월: 사회봉사 화: 회의 수: 문화 목: 위생 금: 기술연마 토: 체육	 · 노동 동원, 계몽선전대 · 각종 회의 진행 (간부회의 수시) · 영화 감상, 문학 모임, 회상기학습(사상성 위주) · 청소, 환경미화 (노력동원으로 대체경향) · 공장 견학, 실습 (노력동원으로 대체경향) · 각종 체육 (준군사훈련)	

111) 이병철(1992), "북한사회단체와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pp. 36~37.

112) 도홍렬(1978), "북한 청소년의 사회화실태", 「북한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국토통일원, p. 150.

종 류	내 용	비 고
3. 경제건설의 선봉대 역할	· 경제건설, 국방건설의 조직지도(군사건설 전선, 채굴전선, 탐사전선, 전력전선, 제철제강전선, 기계전선, 화학전선, 건재전선, 임업전선, 어로전선, 운수전선, 경공업전선) · 천리마작업반 운동의 심화발전 · 청년돌격대 활동전개(평양속도전 1967, 비날론 속도) · 목표량 독려(매월 실적 통계 집계) · 「3대혁명 붉은 기 쟁취운동」, 「3대혁명소조운동」 전개	청년동맹 6차 대회
4. 강습회	· 토끼관리, 병 예방과 치료, 토끼먹이 등	청년동맹 6차 대회
5. 집단적 기술혁신 운동	· 기술혁신 청년돌격대, 자동차청년돌격대 활동 3대 기술 혁명과업 관철 · 기계제작(용광로, 프레스, 수송장비 등 제작), 기계 창안 · 칭여 수호(청년동맹중앙위천리마학교 선정 칭호 수여)	기 1 7 차 전원회의 (1978. 2)
6. 대자연 개조사업 참여	· 경기 조성, 저수지 관련 관계수로 개설 · 녹화 운동 추진, 사로청림(社勞靑林) 조성	청년동맹 6차 대회
7. 농촌 지도사업	· 3대 혁명 · 농촌 경지의 기계화 화학화	
8. 체육 운동 체육 행사	· 준 군사훈련 · 국방 체육(천보달리기, 산악, 야지(野地)구보)	붉은청년근위대(14~18)
9. 학습회	· 주 2회 · 공산주의, 정치경제학, 계급성, 북한사회주의체제, 남한정세, 공산주의승리의 필연성, 한반도 적화통일의 사명간 고취	학교노동적위대(18~4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청년동맹은 매월 2회 이상 회의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 및 문화활동 등 정치 훈련을 받고 있다. 이러한 청년동맹의 활동 내용을 분석해보면,

<표-11> 청년동맹의 주요활동 비율113)

정치 사상	조직 생활	선전 선동	자아 비판·상호 비판	기 타
48%	20%	17%	7%	8%

로 나타난다.

결국 청년동맹의 이와 같은 활동은 동맹원들을 당 주위에 철저히 조직하여 유일지배체제를 유지,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1981년 10월에 개최된 제 7 차 '청년동맹'대회에서는 청년동맹 조직이 경제건설을 위한 당 정책의 옹호자, 관찰자,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제 각 부문에서 당이 맡겨준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독려하였다.

이와 같이 각종 집단이나 조직에서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만들어 내고 키우기 위하여 집단학습의 방법이 공개적으로 채용되고 있다. 자기비판, 집단토의 집단결정의 방식으로 개인적 요소가 억압되고 집단적 동조만이 권장된다. 북한의 집단주의적 원칙이 길들여지고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바로 각종 집단에서의 조직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 근로 조직의 정치교육 실태

북한에서는 성인기에 들어 직업별로 조선직업총동맹이나 조선농업근로자동

113) 국토통일원(1978), 전게서, p. 428.

맹에 가입하여 공산주의 교양교육을 받고 있으며 여성들은 조선민주여성동맹에 가입하여 공산주의 교양교육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노동력 충당에 동원되고 있다.

1)조선민주주의여성동맹

북한의 주민 중 만 18~55세까지의 전 여성으로 조직이 되는 여맹은 맹원들에 김일성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당의 유일사상 및 강한 노동력을 지닌 공산주의의 이상적 인간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김일성은 여맹의 임무에 대하여 '여성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며 그들의 정치의식과 문화수준을 높이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노동여성들의 역할을 더욱 제고시키는데 있다.'[114]

1971년 10월에 열린 제4차 대회에서는 여성동맹의 당면 과업을 ①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② 여성들 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여성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사업을 첫째 가는 의무로 여겨야 하며, ③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의 강화, ④ '천리마 작업반 운동' 의 적극 추진, ⑤ 후대들에 대한 교양 강화로 어린이를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교양, ⑥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여 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사업 강화, ⑦ 인민군 원호사업 강화 등으로 제기하고 있다.[115]

여맹의 주요한 기능의 하나는 정치학습을 통한 교양 사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김일성유일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케 하는 것이다. 즉 여맹은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 이후 전당적으로 진행된 '2개월 학습'에 여맹원들을 대거 참가시킴으로써 김일성과 당의 시녀역할을 다른 어느 근로단체 못지 않게 담당한 바 있다.[116]

---

114) 이항구(1985), 전게서, p. 85.
115) 상계서, p. 85.
116) 북한 연구소(1985), 전게서, p. 269.

전국에 93,000개의 어머니 학교란 여성교양을 위한 학교를 설치하여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당의 노선, 정책, 혁명역사, 조직생활에 관한 규범, 과학문화, 위생지식 및 자녀교양에 관한 것 등을 의무적으로 학습케 하며 강반석(康盤石)에 관한 선전책자 '강반석여사를 따라 배우자' 백 번 읽기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117]

이와 같이 여성들을 김일성 혁명사상과 당의 유일사상, 노동성 등으로 무장시켜 개인주의, 이기주의사상이 부식할 기반을 말소시킴으로써 공산주의 교양의 적합한 여성을 만들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여성을 여맹의 조직 속으로 끌어넣음으로써 자본주의 제도의 물질적·정신적 토대가 되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 제도를 계획적으로 파괴시킴으로써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다져가고 있다.

또한 여성동맹은 각종 '인민경제계획', 또는 전쟁준비 수행에 남자 못지 않게 여성을 동원시켜 혹사시키고 있다. 특히 '여성호 탱크헌납운동', '여성호 비행기 헌납운동' 등 전쟁의식 고취와 최대한의 노력 착취에 내몰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최근 북한은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성인력의 자질향상을 도모, 고급인력화 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즉 여성을 상대로 학습을 강화하여 과학지식과 능력을 습득케 하고 기술 및 실무수준을 볼 때 남자들이 맡고 있는 일을 대치시켜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시키며 고급기능공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직장이동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이렇듯 여맹은 조직의 과업에도 잘 나타났듯이 주선 공산주의적 교양사업인 정치사상교육에 주목적을 두고 있으며 또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하여 여성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한 조직인 것이다.

2)조선직업총동맹

북한내의 전 노동자 사무원들의 집결체로서 10개의 산업별 단체를 두고 있

117) 민병천(1983), 「북한공산주의」, 대왕사, p. 234.

는 직맹은 민주주의사회에서의 직맹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지닌 단체이다. 이러한 점은 직맹규약에 명시하고 있듯이 '조선직업총동맹은 조선노동당의 옹호자이며, 당의 영도 하에 자기의 모든 활동을 전개한다. 직맹은 노동계급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그들을 당 주위에 결속시켜 당이 제기한 혁명임무수행에도 조직 동원한다. 동맹내의 당적 사상체계를 확립하여 종파주의·지방주의·가족주의를 비롯한 부르죠아사상 잔재를 반대하며 투쟁한다. 관리의 학교, 경영의 학교, 공산주의의 학교로서의 직맹은 북한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의 지도하에 공장·기업소들에게 생산협의회를 조직 운영하며 상호 의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다.'[118]고 규정하고 있다. 동맹원은 조선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지지 옹호하며 매시간 당이 제시한 과업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분야를 제외한 노동과 사무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맹하게 되어 있는 직맹의 규약을 살펴보면 맹원들의 권리조항이라고는 단 한가지, '직업동맹회의에서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것뿐이고, 의무조항으로는,

① 김일성의 교시를 무조건 집행할 것,

② 직업동맹의 비밀을 엄수하고 군사기술을 습득할 것,

③ 직업동맹의 모든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

④ 김일성 사상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하여는 과감히 투쟁을 전개할 것.

⑤ 맹비는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것. 등이다.

맹원의 임무는,

①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의 공산주의교양

② 맹원의 계급교양

③ 기술, 문화교양사업 실시

④ 생산과제 수행에 노동자들의 조직동원과 생산능률 제고 및 노동규율 강화

⑤ 노동보호사업의 조직 집행

---

118) 극동문제연구소(1974), 전게서, p. 214, '조선직업총동맹규약, 제1장 총칙',

⑥ 사회주의 경쟁운동(붉은 기 쟁취운동 등)의 지도 등이다.

여기에서 직맹의 5개 의무조항 중 3개가 정치사상교육과 관련된 것이며 맹원의 6개 임무 중 4개가 정치사상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직맹에서의 정치사상교육이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 가를 알 수가 있다.

그 뿐 아니라 직맹은 사회주의 경쟁운동을 비롯한 모든 노동제도와 노동질서, 심지어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생활태도에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기관이며 노동당의 전위대역할을 하는 어용 단체이며, 모든 노동자와 사무원들을 노동당의 통제 속에 몰아넣기 위한 통제기구이다.[119]

특히 1976년 11월 12일에 개최된 직맹 중앙위 11차 전원회의에서 보고자로 나온 김국훈은 '모든 직맹원들을 농촌지원과 자연개조 사업투쟁에 조직 동원하는 것은 각급 직맹조직들과 직맹일꾼들의 중요한 혁명 과업'이라면서 ' 직맹일꾼들이 이 사업에 사상적으로 동원되어 높은 정치적 열성을 발휘해야 한다.' 고 선동했다. 김은 이어 '직맹조직과 일꾼들은 직맹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혁명교양·공산주의교양·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면서 '일꾼들이 정치선동·경제선동을 힘있게 벌여 대중의 기수가 되고 나팔수가 되어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야 한다.'고 선동했다.[120]

이와 같이 공산주의적 인간화를 위한 대중조작의 수단으로 존재하는 직맹이란 조직체에 속한 모든 맹원들은 조직의 목적에 순응 내지 적응할 수 있는 가치관의 확립 없이는 생존을 조직으로부터 허락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이 지닌 사회적 성격 때문에도 북한주민의 가치관은 사회구조의 핵을 이루고 있는 직맹의 목표로 동질화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맹의 회원들이 갖는 각종 모임인 각급 직맹회의에서는 직업을 가진 군중들을 당의 요구대로 묶어 세워, 당이 제시하는 노선과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에 조직동원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이처럼 각종 직맹

119) 이항구(1985), 전게서, p. 80.
120) 내외통신, 제385호(76. 11. 18), p. 242.

회의에서는 군중을 당의 예속물로 묶어 세우고, 당이 요구하는 대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된다.

3) 조선농업근로자동맹

북한 사회에서 모든 주민들의 사회 단체의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한 한 방편으로 농민(농업노동자)들로 구성이 되는 사회 단체가 바로 농업근로자동맹이다. 농근맹 역시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수행하고 당과 농업부문의 노동자 사무원을 연결시키는 인전대(引轉帶)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1964년 6월 개최한 노동당 제4기 9차 전원회의에서 농근맹은 '협동농민과 국영농장 및 사회주의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기관 기업소, 직장의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혁명적 대중 집단이며 당과 농업부문의 근로대중을 연결시키는 인전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21]

농근맹원(農勤盟員)들의 의무조항에 명시된 이상적인 인간상은 비단 농민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와 기타 각종 단체(직맹, 여맹)의 구성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 하겠다. 농근맹 규약 중 1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의무조항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122]

① 농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적극적 투쟁

② 당 노선과 정책에 무조건지지

③ 당의 혁명 전통 연구와 혁명 투사들의 모범 학습

④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김일성 노작(勞作)연구와 공산주의사상으로의 무장

⑤ 제국주의(일제, 미제) 및 자본가 계급 증오와 사회주의제도 옹호

⑥ 개인 이기주의와 소소유자(小所有者)적 근성 청산, 집단주의사상 무장, 혁명적 낙관주의 견지

⑦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품성 소지, 동지애·바른 예절·겸손·소박 견지,

121) 북한연구소(1985), 전게서, p. 271.
122) 극동문제연구소(1974), 전게서, pp. 226~227.

낡은 습관 청산

⑧ 농촌에서 수리화·기계화·전기화·화학화 추진, 집단적 영농방법 발전

⑨ 일반지식·기술·문화 수준 향상, 문화위생 시설 확충, 군중문화사업 적극 참여, 체력 향상

⑩ 사회주의 경쟁과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의 솔선 참가, 혁명적 정열 발휘

⑪ 법령, 노동규율 엄수, 협동농장의 관리 운영과 공장·기업소의 기업관리 운영에의 적극 참가, 국가 계획의 초과 완수

⑫ 국토와 국가자원 소중히 하는 시각 함양, 국가 사회재산 절약

⑬ 국가와 조직의 비밀 엄수, 혁명적 경각심 앙양, 사회주의 전취물(戰取物)의 수호

⑭ 동맹 생활의 성실, 회의에의 적극 참여

⑮ 동맹 규율 준수, 사업 및 생활에서의 결여 비판, 자기 결함 시정

이상 15개의 항목의 의무조항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공산주의 도덕 교양뿐 만 아니라 법령·노동규율·작업 방식과 작풍(作風)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강조하고 있다. 특히 15개의 의무 조항 중 7개의 조항이 정치사상교육과 관련이 있어 북한의 정치교육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강조되어지고 있는 가를 짐작할 수 있고 하겠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사회단체들의 정치교육 한계

지금까지 살펴 본 봐와 같이 북한에서의 사회단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치사상교육이었다. 이러한 정치사상교육은 어떠한 단체를 막론하고 가장 핵심적인 임무로 부여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교육 등에 힘입어 북한에서는 1980년대 말까지는 별 동요 없이 그들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에서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 외국의 소식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체제에 불만을 갖거나 체제를 비판

하는 소리와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러한 소리와 움직임은 결국 사회단체의 정치교육에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성장세대에 대한 정치교육의 방법으로 등장한 청년동맹과 소년단은 공산주의건설의 교대자로서 북한에서는 정치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사회 단체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소년단에서의 정치교육은 초기에 어린이로 하여금 부모를 고발하는 모습을 창출하기도 하면서 체제의 안정에 큰 공헌을 하였다. 또한 김일성주의청년동맹은 당의 가장 믿음직한 인전대로서 북한에서 청소년들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교육의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김정일의 정권 승계를 무난히 이룰 수 있도록 한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에서의 모습은 이러한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북한에서는 김일성주의청년동맹의 조직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그들의 토의주제들이 조직강화와 충성심고조의 문제로 집중되는 것[123]으로 보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 전후 북한의 청소년들 사이에 사회적 일탈현상이 두드러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겠다. 실제로 북한에서의 청소년 범죄는 전체 범죄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50% 이상이 22~25세의 청년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고,[124] 심지어는 300명이 넘는 거대한 폭력조직들도 생겨나고 있다. 또한 1993년 초 김일성 종합대학이 주축이 되어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성이과대학, 평양의학대학 학생들까지 망라한 반체제 결사조직 구성사건이 발생하거나, 1993년 말 함흥에 본부를 둔 반체제 조직이 무장봉기를 기도하다가 조직원 전원이 검거되어 총살당하는 사건[125] 등을 통해서 볼 때 14세에서 30세의 연령에 속한 전체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김일성주의청년동맹의 사상교양사업에 틈이 생기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녀의 평등과 여성의 노동력을 경제 및 국방건설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결성이된 여맹은 북한에서 여성의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123) 「내외통신」 38호(1989년 7월), p. 371.
124) 통일부 통일교육원(1998), 「통일문답100」, p. 132.
125) 귀순자 윤웅의 증언

그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고 그들은 평가하고 있다. 실 예로 1956년도의 여성 노동력 비율이 20%에서 1971년에는 45.5%로 향상[126]된 것으로 보아 북한에서 여맹은 여성의 노동력을 이끌어내는 대에는 큰 공헌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여성의 지위는 그들의 노동력만큼 크게 향상되기보다는 더 낙후되거나 이전 상태를 답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이유로 우선 <표-12 >를 참조하면 여맹의 맹원수가 1946년 60만에서 1971년 270만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1987년 20만으로 줄어들었다.

<표-12 > 여맹 맹원의 증감

연 도	1946	1962	1971	1987
맹 원 수	60만	250만	270만	20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그리고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의 비율도 1948년 정권수립 당시 12.2%에서 시작하여 1972년 제5기에는 20.9%까지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1982년 제 7기에는 14.8%로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다. 지방 대의원의 비율도 1969년도에는 32.5%에 이르기까지 그 비중이 컸었으나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는 대의원이 5%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추정하고 있다.[127]

이렇듯 실질적인 북한에서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낮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여러 문학 작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가요에서도 과거 강인하고 혁명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였던 '녀성 해방가'나 '피바다'의 여성 모습이 아니라 '여성은 꽃이라네'[128]와 같은 전형적인 여성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126) 최동식(1992), 전게논문, p. 175 참조.
127) 최 명(1990), 「북한 개론」, 을류문화사, p. 334.
128) <녀성은 꽃이라네> 김송남 작사/ 리종오 작곡
녀성은 꽃이라네, 생활의 꽃이라네
한 가정을 알뜰살뜰 돌보는 꽃이라네
정다운 안해여 누나여 그대들 없다면
생활의 한자리가 비어있으리
녀성은 꽃이라네, 생활의 꽃이라네

이러한 모습은 최근 SBS에서 방송된 립꺽정에서도 남자(립꺽정)에게 순종하는 여성(기생)을 자연스럽게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어맹에서도 어머니의 역할과 '안해'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서 오히려 가부장제 질서강화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129]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여맹이 여성의 노동력 동원에는 성공하였으나, 여권의 옹호나 성차별의 극복, 사회부조리의 해결 등 사회단체로서의 비판적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직업총동맹은 체계적인 공산주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기성세대의 문화 속에서 당의 요구에 복종적이고 열성적으로 동조하는 인간상을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조해 냈다는 점에서는 그 효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80년대 이후에 와서 직맹의 정치사상교육을 더욱 강화[130]하고 있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그들의 정치사상교육이 현재까지도 완전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겠다. 실 예로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안전부 사람들은 안전하게 뽑아먹고, 보위부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뽑아먹고, 당간부는 당당하게 뽑아먹는다[131]"라는 은어가 유행할 정도로 직장절취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공장이 1년에 4~5개월 정도 돌아가는데 그때 공장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은 기간중 공장생산물을 훔쳐서 퇴근하는 일[132]이라고 할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맹의 정치사상교육이 지금까지도 철저히 이행되고 있다고는 예상할 수 없다 하겠다.

농근맹은 보수적이고 전근대적인 정치문화를 온존하고 있는 농촌을 대상으로 정치적 통제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단체이다. 북한에서는 농근맹을 통하여 농촌문제의 두 측면인 농업 생산의 증대라는 농업문제와 농민 특유의 분산성을 극복하기 위한 농민문제의 동시적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

129) 윤미량(991),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 p. 192.
130) 최동식(1992), 전게 논문, p 169.
131) 귀순자 윤웅(1993년 10. 11 귀순)의 증언
132) 민족통일연구원(1994), 「북한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4-23), p. 96.

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농촌에서는 농업의 공업화와 농촌 경리 발전 등 농업기술혁명은 여전히 절박한 과제로 내세워졌고 농민들의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생활강화, 공동 노력 및 집단생활 단련 등도 여전히 변함없이 높은 목소리로 강조되고 있다.[133]

<표-13>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134]

구 분	총수요	전년도생산량	부족량
'91	647	481.2	165.8
'92	650	442.7	207.3
'93	658	426.8	231.2
'94	667	388.4	278.6
'95	672	412.5	259.5
'96	673	345.0	328.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실재로 북한에서는 농민을 농업근로자화하여 만든 협동농장제도와 영농기술의 낙후성은 1992년 이후 매년 200만톤 이상의 식량부족현상을 가져오게 했으며(<표-13>참조) 특히 95년도와 96년도에 발생한 서남부지역의 수해는 농촌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농촌은 피폐화되어지고 있고, 농민들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집단농장에서 노동보다도 개인의 텃밭 등과 같은 곳에서의 노동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정치교육이 잘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라 하겠다.

133) 「내외통신」 제39호(1989년 9월), p. 182.
13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1997), 「북한의 오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p 127 참조.

V. 결 론

이상에서 북한의 정치교육의 변천과정과 정치교육의 수행기관으로서의 사회단체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북한에서의 정치교육은 위에서 밝힌 것처럼 초기 마르크스-레닌주의 전형적인 교육의 모방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소련에서 교조주의가 비판을 받고 수정주의가 논의되는 것을 계기로 북한에서는 스스로의 노선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색은 결국 김일성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한 사상으로 명시하게 되었고, 이를 계승하는 김정일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당의 유일사상으로 김일성주의가 정치교육의 지도 이념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지도 이념 하에 북한은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공식적인 교육강령으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1977)를 발표였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통하여 교육 원칙 등 북한의 정치교육 내용의 골격이 삼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치교육을 유아기부터 모든 기관을 통하여 전 주민들에게 행하여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주민들은 모두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사회단체에 가입되어져 있고, 이러한 사회단체들은 북한에서의 정치교육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치교육의 수행 기관으로서의 사회단체들은 자유주의 체제의 단체들과는 성격의 다른 모습으로 당의 정책과 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한 당의 전위대 혹은 인전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연령별, 성별 혹은 직업별로 전 주민을 조직화하여 각자의 부분에서 정치사상교육의 비중을 최대로 두면서 정권수립 이후 북한체제의 안정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한 결과 지금까지 별다른 동요 없이 폐쇄적인 체제를 이끌어 왔으며 또한 김정일의 정권세습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에서도 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이 되어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1992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원유공급에 대한 국제가격 책정 및 경화결재의 요구와 중국의 경화무역거래방식의 요구는 북한의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고, 이는 북한의 경제가 '90년 -3.7%, '91년 -5.2%, '92년에 -7.6%, '93년 -4.3%, '94년 -1.7%, '95년 -4.5%[135] 6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5, '96년도의 수해는 북한의 경제난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러한 경제난은 북한 내에서도 일부의 비판세력과 반체제운동을 나오게 하였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 체제의 전면적 혹은 부분적인 개방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비추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사회단체들의 역할은 정치교육에 치우쳐 있었고, 또한 그 영역이 당의 전위대, 혹은 인전대로서 한정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비록 사회통제와 동원에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정치변화나 발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키울 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서 북한 사회단체들의 변화는 필수적이라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해 낙관만을 금물이라 생각된다. 북한에서의 체제 안정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집단에 대한 철저한 봉쇄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알고 있는 김정일은 개방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면 개방은 자신의 체제 붕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로 감히 시도를 못하리라 여겨진다. 여기서 그들의 과제는 경제적 회복과 함께 체제의 안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것이다. 특히 김일성처럼 카리스마가 없는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더욱 절실한 과제라 하겠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어쩌면 김일성주의 청년동맹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한 의도는 체제 안정을 위하여 더욱 폐쇄적인 사상교육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다. 반대로 사상교육보다는 실용주의적인 측면

135) 통일교육원(1997), 「북한 이해」, 통일원, p. 71.

을 강조한 기술 위주의 교육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지금 김일성종합대학 교문 들머리에는 하나의 구호가 걸려져 있다. '가는 길이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136] 이 구호를 통해서도 알 수 잠작할 수 있듯이 북한의 경제는 최악의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는 북한의 주민들도 인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상교육을 통하여 이 책임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에게 보다는 남한이나 미국, 중간 간부들에게로만 전환시켜 왔다. 그러나 그러한 책임회피가 계속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정권을 승계하였고, 앞으로 몇 년간이 북한에 있어서는 김일성 왕국에서 김정일 왕국으로 전환시키려는 최고의 변혁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혁기에 북한에서는 갖고 있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려면 분명한 체제의 변화는 있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정치교육에 큰 부분을 담당했던 사회 단체들의 역할들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변화가 예측 될 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체제 변화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36) 한겨레신문, 1998년 12월 3일자, '북녘 사람들'.

참 고 문 헌

【1차 자료】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1977).

김일성저작선집(4,5,6,7권).

'어린이 보양교육법'(1976).

'북한사회주의 헌법'(1992. 4. 9 개정).

사회과학원편(1975),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리론」, 사회교육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편(1985),「령도체계;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9」.사회과학출판사.

김정일(1992),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중앙연감, 조선중앙 통신사.

리영복(1984),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의 교육」, 사회과학출판사.

【2차 자료】

<단행본>

북한연구소(1977), 「북한교육론」, 북한연구소.

북한연구소(1977),「북한사회론」, 북한연구소.

북한연구소,(1983), 「북한 총람」, 북한연구소.

북한연구소,(1985), 「북한 총람」, 북한연구소.

Willem Langeveled, 「정치교육」, 박용헌 역(199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극동문제연구소(1974), 「북한전사」, 극동문제연구소.

극동문제연구소(1976), 「북한정치론」, 극동문제연구소.

극동문제연구소(1980), 「북한전서」, 극동문제연구소.

양성철 · 박한식 편저(1986), 「북한기행」, 한울.

강운빈(1989), 「인간개조리론」, 조국.

김운태 외(1977), 「한국정치론」, 박영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김대웅(1985), 「가정의 기원」, 아침.

김동규(1988), 「사회주의 교육학」, 주류.

유재천 편(1989), 「북한의 언론」, 을류문화사.

국토통일원 편(1978), 「북한의 생활실태」, 국토통일원.

국토통일원 편(1981), 「북한자료집」,국토통일원.

국토통일원 편(1984), 「북한개요」,국토통일원.

국토통일원 편(1987), 「김일성 논문 '주체사사에 대하여' 비판」 국토통일원.

국토통일원 편(1978), 「북한의 이질화 실태조사」, 국토통일원.

한국정치연구회(1990), 「북한정치론」, 백산서당.

강석승 외 공저(1995), 「북한사회론」, 법문사.

내외통신사(1992), 「북한용어 250선」.

이항구(1985), 「북의 실상과 허상」, 한국출판사.

이상두(1986),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거목.

중앙교육연수원(1981), 「북한 주민의 한평생」, 문교부.

민병천(1983), 「북한공산주의」, 대왕사.

이동훈 외(1995), 「북한학 개론」, 대청마루.

최 명(1990), 「북한의 인식」, 을류문화사.

윤미량(1991),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1996), 「북한 이해」, 통일부

통일부 통일교육원(1998), 「통일문답 100」, 통일부.

한만길(1997),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교육과학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1997), 「북한의 오늘」.

김경동(1981),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논문 >

고성준(1998), “북한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대북 정책의 과제”,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권역별 대학 세미나, 민족통일원 ·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최동식(1992), “북한정치교육의 수행체계와 기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경웅(1993), “북한의 정치사회화”,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

조병옥(1992) “북한의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대학원.

박영길(1985), “한국 민족정신 교육의 사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용헌(1986), “외국의 정치교육동향과 한국의 국민정신교육”, 「국민윤리연구」 제22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서정우(1989), “공산주의 언론의 본질과 기능”, 「북한의 언론」, 을류문화사.

국토통일원(1984), “김일성부자세습체제의 정책방향”, 국토통일원.

천장웅(1991), “사회주의권 청소년단체의 정치사회화”, 「한국청소년연구」 제6호.

이정수(1986), “김정일 세습체제 하에서 외곽단체의 활동”, 「통일문제연구」, 국토통일원 통일연구소.

이대길(1973), “당 외곽단체로서의 사로청”, 「국제문제」 1973년 11월호.

이병철(1992), “북한사회단체의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대학원.

도홍렬(1978), “북한 청소년의 사회화 실태”, 「북한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연구」, 국토통일원.

이성덕(1989), “청소년에 대한 남북한 정치사상교육 비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원식 · 박성수(1982), "공산주의 국가의 유아교육",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4권 제2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광수(1992), "북한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봉준(1994), "북한 사회주의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인석(1988), "남북한 정치교육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 문헌>

Dean, Jaros(1973), *Socialzation to Politics*, Thomas Nelson.

Lin, Yutang(1943), *The Wisdom of Confucius*, Random House.

Dennis, Jack(1973), *Socialzation to Politics,* Little, Brown and Company.

Eulau, Heinz(1963), *The behavioral Persuasion in Politics*, Random House.

Hyman, herbert h.(1959), *Political Socialzation,* The Free Press.

Apter, David(1965), *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University of Chicago.

< 기 타 >

한겨레 신문1998년 12월 2일자부터 연재, '북녘 사람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Summary>

A Study On The Political Education of Social Organitions in North Korea

Koh, Kwan-Hee

National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Seong-Joon

The political education have been practiced for the maintenance and the development of the structure in any nation. In this way it has been practiced in order to retain the stability and the development of the structure in North Korea. But differently from the free world, North Korea has reinforced the formal education with intent rather than the informal education all over the field of society.

Especially in North Korea all the people should be affiliated in social organitions according to their age, sex, job. These social organitions act not as pressure organitions which preserve member's benefit like the free world but as political education instrument which enables Kim Il Song and Kim Jong Il's dictatorship by education of Kim Il Song's unitarianism. Due to this kind of the political education, it was possible to maintain a completely closed and controllable society in North Korea, as a result one-man dictatorship was possible.

In North Korea from childhood the formal political education is practiced, and then at the age of nine, regularly at Sonyundan-Sonyundan as the children's organization of communism. Many socialist organization are formed to construct a socialist state - Cheongnyun-dongmaeng (youth union) ,Nongopgeuloja-dongmaeng (agricultural labor's union). These social groups manly have practiced the political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1999.

education rather than their members' interests.

These political education enables Kim Jong Il to appear on the political stage without the political disturbance.

But recently the political system of North Korea come to a crisis because of lasting slow-growing economy, a bad crop and a '95 -'96 flood disaster. Because of these difficulties many deviation acts have come out in North Korea. As a result North Korea is forced to change the structure.

Under these circumstances, social groups in North Korea, clearly, are expected the change. This change make North Korea reinforce its more conservative political education.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may also accept the practicalism and consequently education in social group may follow this practicalism including technical education.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